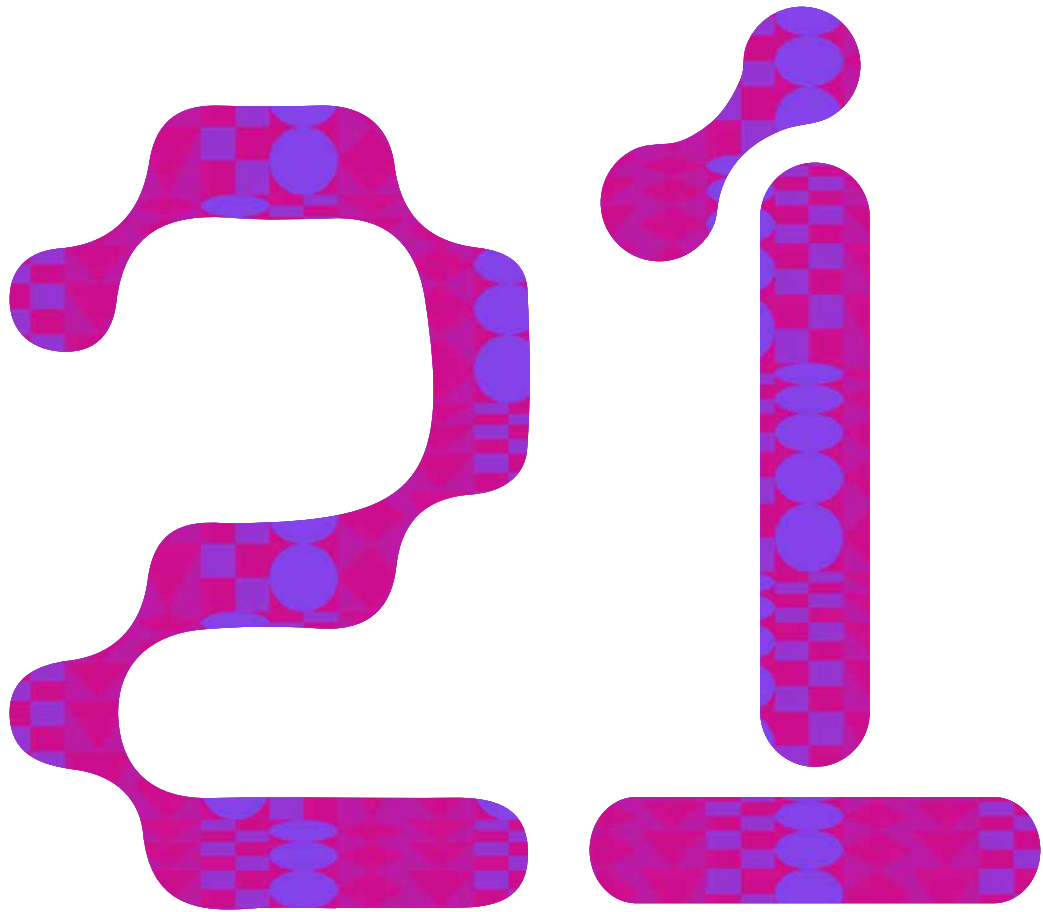


# MECENAT



한국메세나협회 2021년도 연차보고서  
Korea Mecenat Association 2021 Annual Report

Introduction

Introduction	개요	4
	연혁	
	운영조직	
	임원진	
	회원사	
	사무처	
	주요사업	

2021 Highlights	2021 하이라이트	12
-----------------	------------	----

2021 Business

기업과 예술의 만남	기업·예술단체 결연	18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중소·중견기업 메세나 활성화 사업	
	메세나 전국망 구축 사업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사업	

문화공헌 사업	찾아가는 메세나	32
	Arts for Children	
	Access for Arts	

조사·연구·학술사업	2020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48
	2021 문화접대비 사용 현황 조사	

한국메세나대회		50
---------	--	----

회원서비스		54
-------	--	----

커뮤니케이션		55
--------	--	----

Financial Report

2021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58
	운영성과표	
	감사보고서	

Press Release

2021 언론보도		62
-----------	--	----

“  
우리 기업 발전에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하게 된 ESG경영에도  
메세나를 접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예술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오신 기업인들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그러한 우리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자 발간했습니다. 우리 회원사들의 진정성 넘치는 메세나 활동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한층 더 깊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회원사와 협력하는 문화공헌 사업을 비대면과 대면방식으로 적절히 조절하여 코로나19라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 & Business)’사업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해 280건의 결연커플이 탄생하며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변함없이 지원했습니다.

또한 본회는 메세나 전국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제주·세종시메세나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매칭펀드 사업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의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협조를 통해 2021년 11월 부산메세나협회가 창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지역 메세나 기구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역 메세나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같은 사업들을 이뤄낸 데에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본회는 앞으로도 정부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야를 우리 기업들이 채워나감으로써 메세나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 발전에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하게 된 ESG경영에도 메세나를 접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김희근

우리는 만듭니다.  
예술의 미래를,  
기업의 성공을,  
세상의 변화를.

# 개요

## 설립목적

대한민국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시켜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에 기여

## 미션



## 핵심활동

- 기업의 기초예술분야 지원 활성화
- 문화예술계 진흥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 효율적 예술지원 방안 연구 및 자료·데이터 제공
- 문화예술 지원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촉진을 위한 법제와 정책 건의

# 연혁

## 1990

- 1994.**  
04.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설립  
제1대 회장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취임
- 1999.**  
01. 제3대 회장 하나은행 윤병철 회장 취임  
10. 제1회 문화예술지원기업대상 개최

## 2000

- 2000.**  
06. 제4대 회장 SK그룹 손길승 회장 취임
- 2001.**  
10. 제2회 메세나대상 시상식 개최 (명칭 변경)
- 2002.**  
04. 1기업 1문화 운동 시작
- 2003.**  
07. 제5대 회장 금호그룹 박성용 명예회장 취임
- 2004.**  
02. '한국메세나협의회'로 명칭 변경  
07. 'Arts for Children' 사업 착수  
09. 전국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나눔' 사업 시작
- 2005.**  
10. 제6대 회장 이건산업 박영주 회장 취임  
12.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Business) 사업 출범
- 2007.**  
03.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출범  
05. A&B포럼 론칭  
10. 예술단체 교육 사업 론칭  
11. 제8회 '메세나대상'을 '한국메세나대회'로 확대 개최 (시상식&심포지엄)
- 2009.**  
03. '메세나법 제정' 사업 착수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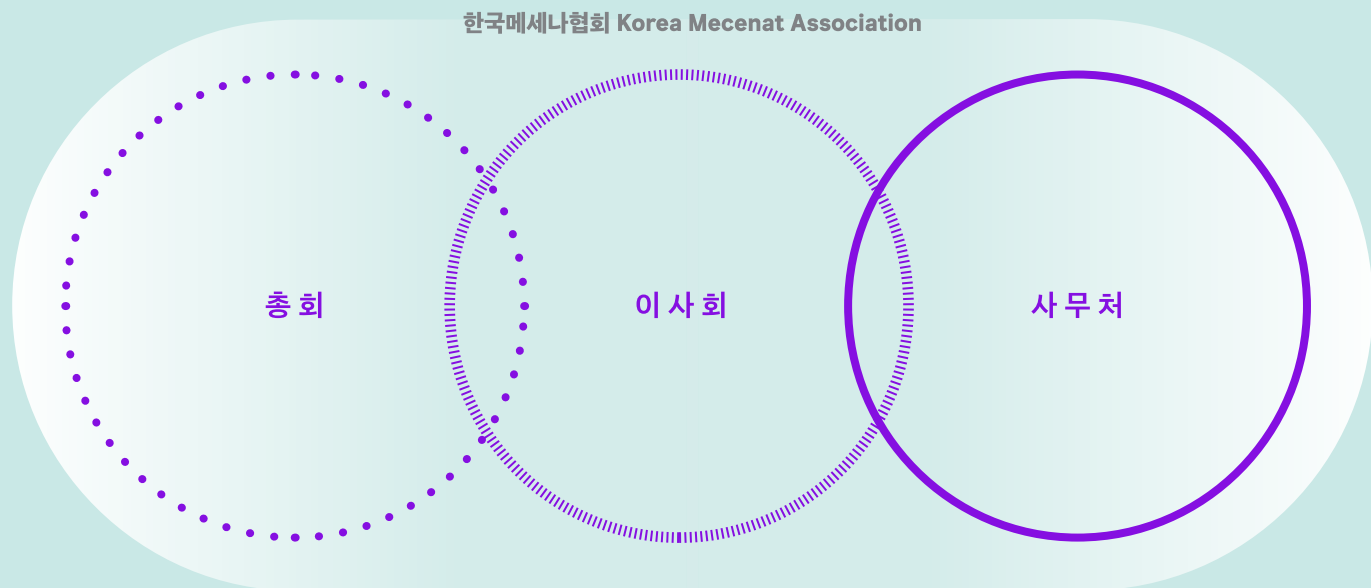
- 2010.**  
05. '메세나 Arts Friends' 론칭
- 2012.**  
02. 제8대 회장 두산그룹 박용현 회장 취임  
09. '메세나 CEO 문화포럼' 론칭  
10. '메세나 회원 음악회' 론칭
- 2013.**  
02. '한국메세나협회'로 명칭 변경  
1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2014.**  
03.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사업 착수
- 2015.**  
02. 제9대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취임  
03. 문체부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 인증
- 2016.**  
12.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 실무 협의체 구성
- 2018.**  
02. 제10대 회장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 취임  
04. 메세나 전국망 구축 사업 착수
- 2019.**  
07.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위한 세종문화회관과 MOU체결

## 2020

- 2021.**  
03. 제11대 회장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 취임



## 운영조직



**구성** 임원과 회원으로 구성  
**역할** 회장 선출,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승인, 정관 변경 등 의결

**구성**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총 32인과 감사 2인으로 구성  
**역할** 임원 선출, 재산 관리, 회비 책정 총회 부의 안건 및 위임사항 등 의결

**구성** A&B팀, 문화사업팀, 경영기획팀 총 3개의 부서로 구성  
**역할** 사무처 목적 사업 수행 및 본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

### 2021년도 정기총회

**인원**

총 회원사 229社 중 48社 참석, 위임장 72社

**회의결과**

원안대로 의결(2020년 사업결과 및 결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 선임 및 사임, 비활동 회원사 정리, 정관 변경, 신임 회장 선출)

### 2021년도 이사회

**인원**

재적이사 32명 중 15명 참석, 위임장 7명

**회의결과**

원안대로 의결(2020년 사업결과 및 결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임원 선임 및 사임, 비활동 회원사 정리, 정관 변경, 신임 회장 선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준한 행사 시간 최소화를 위해 이사회·총회 연속회의로 개최

## 임원진

구분	임원사명	성명	직위	
회장(1)	벽산엔지니어링	김희근	회장	
	이건산업	박영주	회장	
고문(3)	두산연강재단	박용현	이사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前회장	
명예회장(1)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	
	노루홀딩스	한영재	회장	
	동성케미컬	백정호	회장	
	삼성미술관	홍라희	前관장	
	삼양홀딩스	김 윤	회장	
	설원량문화재단	양귀애	이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부회장(15)	유니드	이화영	회장
		중근당	이장한	회장
		코오롱그룹	이웅열	명예회장
		크라온-해태제과	윤영달	회장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최윤정	이사장
		풍산그룹	류 진	회장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고려당		정재호	사장	
금호문화재단		양지훈	전무	
(주)두산		민은식	상무	
사라		안윤정	사장	
(주)신세계		차정호	대표이사	
이건홀딩스		안기명	부회장	
이사(14)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상근부회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범헌	회장	
	한성자동차	울프 아우스프룽	사장	
	CJ사회공헌추진단	민희경	부사장	
	KT ESG경영추진실	이선주	실장	
	LG연암문화재단	양재훈	대표	
	SKSUPLEX추구협의회SV위원회	이형희	위원장	
	감사(2)	한미회계법인	김기균	상무
		법무법인은율	윤영석	변호사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기업명 가나다순)

# 회원사

## 회장사

벽산엔지니어링


## 부회장사

교보생명보험  
노루출딩스  
동성케미컬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삼양출딩스  
설원량문화재단  
세아제강  
유니드  
중근당  
코오롱그룹  
크라온-해태제과  
파라다이스문화재단  
풍산그룹  
한미약품  
효성


## 이사사

고려당  
금호문화재단  
(주)두산  
사라  
(주)신세계  
이건출딩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성자동차  
CJ문화재단  
KT  
LG연암문화재단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회

## 2021 신규 회원사

면사랑 

선명회계법인 

에네스지 

한솔케미칼 

햇빛담요 

GS칼텍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기업명 가나다순)

## 회원사

가나아트갤러리  
강원랜드  
경남스틸  
공간그룹  
금융투자협회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고속 유스퀘어  
금호미쓰이화학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금호플리켄  
금호피앤비화학  
기자자동차주식회사  
나라삼양감속기  
나라통상  
나우피플  
남이섬교육문화그룹  
네이버문화재단  
네이처스웨밀리코리아  
노루버케미칼  
노루오도코팅  
노루페인트  
뉴서울 컨트리클럽  
스니킨 코리아  
뉴욕제과  
다진  
대성산업가스  
대신증권  
대우건설  
대창스틸  
대한상공회의소  
대한항공  
더페이스샵코리아  
주식회사 더성도  
돌실나이  
동서식품  
동아출판  
에스원  
동일FnG  
두산건설  
두산연강재단  
두산중공업  
디자인하우스  
로알&컴퍼니  
롯데렌터카  
롯데문화재단  
롯데백화점  
마케팅큐레이터 그룹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면사랑  
모나미  
문화유산국민신탁  
미디어윌  
베이글카페

보령제약  
본아이에프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양인터내셔널  
삼익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삼화에프엔에프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옥션  
선명회계법인  
세원특수금속  
세일ENS  
사회예술문화재단  
소니코리아  
송원문화재단  
스파크인터내셔널  
신라교역  
신성씨에스  
(주)신세계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시아나H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항공  
아이피케이  
(주)에네스지  
에스원  
영앤알선 주식회사  
오리콤  
오비맥주 주식회사  
오성정보통신  
울림푸스한국  
우진  
우진건설  
원마운트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원포시스  
유안타증권  
유중아트센터  
이건산업  
이수화학  
인산죽염 주식회사  
인터파크 큐브릿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일신방직  
일진문화재단  
재단법인 송강재단  
재우인베스트먼트  
제일기획  
조선호텔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양인터내셔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양인터내셔널  
삼익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삼화에프엔에프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옥션  
선명회계법인  
삼익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삼화에프엔에프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옥션  
선명회계법인  
세원특수금속  
세일ENS  
사회예술문화재단  
소니코리아  
송원문화재단  
스파크인터내셔널  
신라교역  
신성씨에스  
(주)신세계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시아나H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항공  
아이피케이  
(주)에네스지  
에스원  
영앤알선 주식회사  
오리콤  
오비맥주 주식회사  
오성정보통신  
울림푸스한국  
우진  
우진건설  
원마운트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원포시스  
유안타증권  
유중아트센터  
이건산업  
이수화학  
인산죽염 주식회사  
인터파크 큐브릿지

한빛문화재단  
한세실업  
한솔케미칼  
한진  
한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햇빛담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현대차 정몽구 재단  
현대해상화재보험  
호텔롯데  
호텔롯데 면세점  
호텔신라  
홈플러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힐라코리아  
휴맥스  
BMW코리아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I동일  
DL이앤씨  
GA KOREA smart city & resort  
GS칼텍스 예술마루  
GS칼텍스주식회사  
HK  
HSD엔진  
IBK기업은행  
KBS교향악단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H필룩스  
KT&G  
LG생활건강  
LG전자  
LG화학  
LH  
OCI  
POSCO  
SK건설  
SK네트웍스  
SK증권  
SK텔레콤  
SK해운  
SM삼한기업  
TCC스틸

# 사무처



## 주요사업

###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 결연 파트너십 구축 지원 · 컨설팅

##### 추진방향

- 기업의 효율적인 메세나 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카운슬링
- 기업 · 예술단체 간의 교류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
- 국제 메세나 유관기관 협력

##### 세부활동

- 기업 · 예술단체 결연
- 예술지원 매칭펀드
-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 중소 · 중견기업 메세나 활성화 사업
-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사업
- 메세나 전국망 구축 사업
-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 대외협력 사업

### 문화공헌 사업

Cultural Contribution Business

#### 찾아가는 메세나

##### 추진방향

- 예술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및 사회계층 간의 문화예술 향유 불균형 해소

##### 세부활동

-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 크라운해태 찾아가는 국악캠프
- 현대자동차그룹 군인의 품격
- CJ 스테이지업 문화나눔

#### Arts for Children

##### 추진방향

- 아동 · 청소년 및 사회 구성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제공

##### 세부활동

- 금호타이어 나를 지켜줘
- 넷마블창문프로젝트
- 우리 꿈나무 아트 클래스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On-Art School
-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
-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
- 한화예술더하기
-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 현대자동차그룹 아트드림 콩쿠르
- CJ 튜업음악교실
- KT&G복지재단 아름드리 음악미술교실
- LG 아트스쿨

#### Access Arts

##### 추진방향

- 우수 문화예술단체 발굴 · 육성을 통한 자립지원 및 역량강화와 일반인들의 문화예술 접근기회 확대

##### 세부활동

- 두산연강재단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스쿨
-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The Gift
- 한국수출입은행 아트씨드뱅크
- 한화생명 힐라힐러
-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 조사 · 연구 · 학술사업

Academic & Research Business

#### 자료조사 및 정보 제공

##### 추진방향

- 기업의 예술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조사 데이터 및 정보 제공
-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세부활동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 기업 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기업 예술 지원 효과 분석
- 문화예술 후원 관련 사례집 발간
- 문화접대비 사용 현황 조사

### 회원서비스

Member Service

#### 회원 네트워크 및 문화예술체험

##### 추진방향

- 회원사 메세나 실무자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류
-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메세나에 대한 관심 유도

##### 세부활동

- 메세나 CEO문화포럼
- A&B포럼
- 메세나 Arts Friends
- 메세나 예술무대
- 주간 메세나
- 메세나 Members Only

### 한국메세나대회

Mecenat Awards

#### 메세나대상 시상식 &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 추진방향

- 지속적인 예술지원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선발하여 시상
- 시상식을 통해 사회 전반에 예술후원의 분위기 확산 및 홍보

##### 세부활동

- 메세나대상 시상식 (대상, 메세나인상, 문화공헌상, 창의상, Arts&Business상 시상)
-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대기업 - 중소 · 중견기업 부문 베스트커플 선정)

###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 온 · 오프라인 홍보

##### 추진방향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 세부활동

- 언론 홍보
- 「메세나」 지 발행
- 온라인 홍보(뉴스레터, 유튜브, SNS)
- 연차보고서 발행

# 2021 하이라이트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 참여기업 수

257<sup>개</sup>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건수

282<sup>건</sup>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금액

9,868,000,000<sup>원</sup>

문화공헌 사업별 신규 콘텐츠 건수

30<sup>개</sup>

문화공헌 사업별 만족도 점수

평균 4.2<sup>점(5점 만점)</sup>

문화공헌 사업 참여기업 수

19<sup>개</sup>

문화공헌 사업 예술교육 시행횟수

17,534<sup>회</sup>

문화공헌 사업 참여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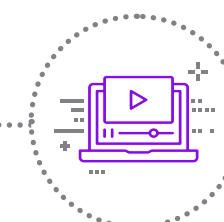
744<sup>개</sup>

문화공헌 사업 수혜자 수

54,072<sup>명</sup>

문화공헌 사업 참여 예술강사 수

934<sup>명</sup>



뉴스레터 구독자 수

7,367<sup>명</sup>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305<sup>명</sup>

유튜브 채널 누적조회수

154,660<sup>건</sup>

# 2021 하이라이트



## 디지털 문화콘텐츠 개발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발맞춰 메타버스, 코딩 교육 등 기술과 접목한 문화콘텐츠를 기획·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문화공헌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 2021년 매칭펀드 사업 성료

코로나19 여파로 예술단체들의 창작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매칭펀드를 통해 70억 원을 예술계에 지원했습니다.

경남·제주메세나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의 매칭펀드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 메세나 전국망 사업 지속 추진

‘부산메세나협회’ 창립을 지원해 경남·제주·세종시메세나협회와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예술지원 참여를 촉진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예술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 비대면 회원서비스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회원서비스가 불가하여 문화KIT 발송 등으로 보완했습니다.

회원을 초청하여 클래식 연주회, 뮤지컬 공연 관람을 지원하던 ‘메세나 예술무대’를 연말 문화공연 티켓 제공 서비스로 대체 운영했습니다.



## 신규 회원서비스 시행

회원사간 공연, 전시, 제품 등의 홍보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메세나 Members Only’와 최신 메세나 동향과 기업·예술계 이슈를 클리핑해 주1회 제공하는 ‘주간 메세나’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 시각예술 메세나 프로그램 강화

공연예술분야 편중 지원 해소를 위해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런칭했습니다.

그 결과 벽산엔지니어링, CJ문화재단,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3년간 세 명의 미술작가 지원을 약속, 향후 참여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1 BUSINESS



#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기업·예술단체 결연

40<sup>건</sup>

28<sup>회</sup>

4,590<sup>만 원</sup>

예술지원 매칭펀드

200<sup>건</sup>

57<sup>회</sup>

8,600<sup>만 원</sup>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42<sup>건</sup>

12<sup>회</sup>

3,740<sup>만 원</sup>

기업은 예술을 만나 창의성을 얻고, 예술은 기업을 만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얻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업과 예술단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자 공동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단발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결연을 통해 다양한 협력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업 · 예술단체 결연



‘기업 · 예술단체 결연’은 기업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협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보유한 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업에게 적합한 파트너를 추천하고, 기업과 예술단체가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예술단체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마케팅 · 경영전략 차원에서 협력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연대상

연극, 뮤지컬, 국악, 클래식 음악, 미술, 다원예술, 페스티벌 등 순수(기초)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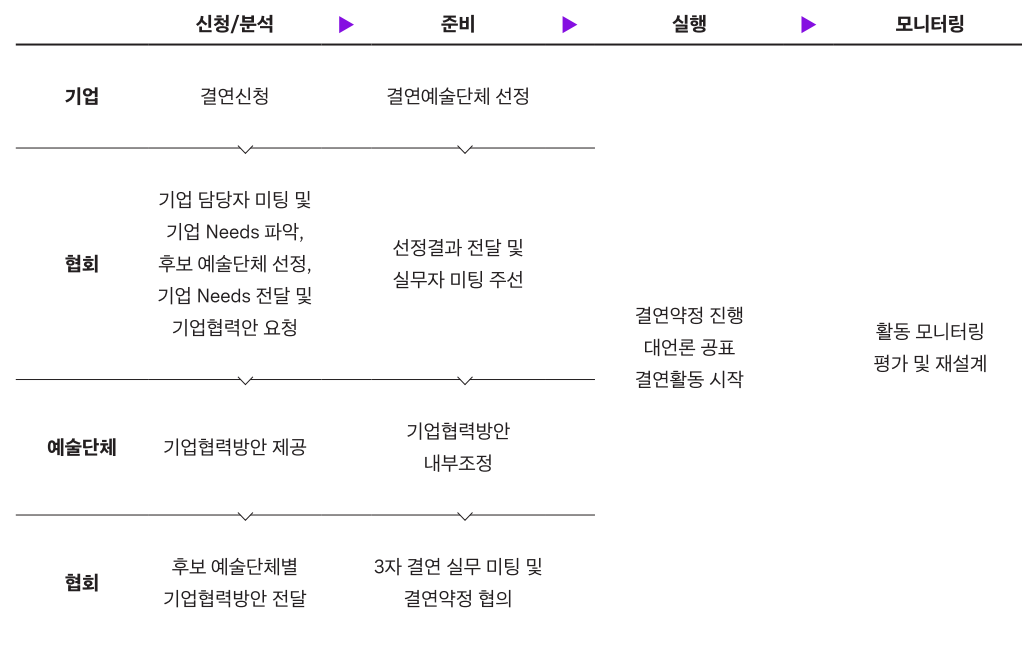
신청기간

연중 상시운영

지원금액

제한 없음(지원금 출연: 참여 기업)

사업 추진 과정



기업	예술단체
템퍼코리아	에이드런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은행나무출판사
케이옥션	광주비엔날레
KT&G	컴퍼니에스에스
일신문화재단	삶과꿈 챔버오페라 싱어즈
한화생명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
LG연암문화재단	ABC랩
한미약품	한국연극협회
크라운-해태제과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케이옥션	핸드스피크
KT&G	상상마당부산 인터파크
LG연암문화재단	JS미디어랩
금호타이어	A.COM
대원문화재단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설원량문화재단	페스티벌 오원
한국전력공사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종근당	MIRI오페라단
대원문화재단	평창대관령음악제
한국전력공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신한은행	하트하트오케스트라

기업	예술단체
동아제약	문화예술봉사단메리
케이옥션	한국미술사학회
한국토요타자동차	캔파운데이션
부산은행	부산영상위원회
템퍼코리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금호타이어	디스코크리에이티브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
현대백화점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올림푸스코리아	세종문화회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AUX
KT&G장학재단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신세계백화점	한빛예술단
크라운-해태제과	아트공간
태광산업	행복나무플러스
GS칼텍스재단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종근당	아트스페이스 휴
현대중공업	USP챔버오케스트라
CJ문화재단	화음챔버오케스트라
KT&G장학재단	커넥트바이에이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클럽M

40





### 예술지원 매칭펀드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의 예술지원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참여대상

상호 후원 계획이 확정된 기업 및 예술단체

#### 신청기간

2021년 3월 첫째 주부터  
매칭펀드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 매칭 비율	기업지원금	펀드교부금
중소기업		최소 500만 원 ~ 상한선 없음	
중견기업	최대 1:1	최소 1,000만 원 ~ 상한선 없음	최소 5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대기업		최소 1,500만 원 ~ 상한선 없음	

#### 사업 추진 과정



기업	예술단체
원테크	디오티 미술관
KH필룩스	극단 즐거운사람들
이건창호	재단법인 아름지기
일성해운	우리노래팔찌이
신태양종합건설	극단 이티에스
동일문화종합재단	대구음악협회
에이치케이	행복나무 플러스
이노에이티브디자인	컨템포러리 컬처
대창스틸	서울모테트음악재단
서우디자인	한국현대무용협회
영도벨벳	구미오페라단
우리술	ART STAGE 다올 - 청평문화예술학교
세광기업	즉각반응
포스테코	시나위 공연기획단
티스케이프	극단 스토리팜
한모기술	토카아트
성남	극단 오오씨어터
영텔레콤	예술집단 하우
이음스토리	아야프 앙상블
아이엘씨	조은극장
대명복지재단	비바츠아트그룹
스파크인터내쇼날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대양기술	엠제이 플래닛
지승씨앤아이	연우무대
위주테크	극단 글로벌극장
태강	연극열전
비엔피 엔지니어링	극단이야기
에스디이엔지	극단 시선
뉴태양	동그라미그리기
노루출딩스	심포니송
큐비스트	디피에스 컴퍼니
J2K글로벌	극단 연
디엔케이개발	코코퍼포밍
삼경건설	문화락
동양제관	솔오페라단
KB금융지주	즐거운 생활

기업	예술단체
산책	한국동요음악협회
한국파마	노블아트오페라단
에몬스가구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
디에이치 리소시스	극단 사계
치어럽스메디	극단 가탄
주원종합건설	극단 창
세방	고래야
삼우종합개발	한국연극배우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사람과문화 건축사무소	극단 수
한진중공업	예술아카데미 나빌레라
재단법인 정헌재단	컬처마케팅그룹
화성건설	국제연극연구소 H.U.E.
소이물산	모아티에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극단 피악
짐모아	콘텐츠 윈
지중공업	한국세필화연구소
세풍이앤씨	한국연출가협회
레보캠	명작극장
남이섬교육문화그룹	춘천마임축제
뉴스킨코리아	서울튜티앙상블
새곳	극단 북새통
제이엔엘파트너스	케이뮤지컬 컴퍼니
몽당협동조합	다이얼로거
디와이엘씨디	극단 아리랑
참도깨비 유통	문화기획단 무대공감
삼진스틸산업	서울윈드오케스트라
도원씨에스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씨에스텍	야단법석
크라운해태홀딩스	한국음악협회
NVH코리아	프렌즈 오브 뮤직
한국건설	플레이 팩토리
재단법인 노래의섬	두팔로
이안세무법인	트러스트무용단
대덕휴비즈	글로리아오페라단
애플클로젯	빈아트
디포그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기업	예술단체
북일	티비이엔티
진성기전	따뜻한사람
경남스틸	경남오페라단
야후건기	호남오페라단
로드워크	극단 청맥
아이코스아이	모스트필
벽산엔지니어링	세종솔로이스츠
쌍크폴	양상블 공간
두원이엔지	서울시민간오케스트라연합회
두원이에프씨	코리아나매니지먼트
티엠이씨	극단 영스
벽산엔지니어링	한국페스티벌양상블
맵스인터내셔널코리아	위너스컴퍼니
두원이엔지	김자경오페라단
컨티뉴	마당
두남화학	양상블 별하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씨어터
이모든세상	이매진디아츠팩토리
서울캐딜락	과수원뮤지컬컴퍼니
진성테크	대건챔버콰이어
대일건설	소환사
엠에이피한터인종합건축사사무소	UNICO
씨에스텍	극단 마중물
바이시클	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기업	예술단체
현대회계법인	극단 아신아트컴퍼니
프라임메디칼	자하미술관
에이엠컬처	동화
대일건설	새서울기획
에이엠컬처	이비컴퍼니
비즈케어	정형일 Ballet Creative
태팩스	서울오케스트라
대원도재	여주국제도예작가협회
알파지이테크	슬리스트 브라스 밴드
빌트조명	이강 play
용창에프엠	전원
남향푸드포피아	엘에이치피커뮤니케이션
새운암병원	광주오페라단
에스아이에스	라일락향기
우림엠에이치	콘티
태신화이바	소리얼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유진이엔씨텍	민드림컴퍼니
다우 엠케이지	컬리년 아트컴퍼니
면사랑	서울챔버오케스트라
플리즈 프로젝트	유쾌한 상상
새운암병원	더 싱어즈
엘림 마리나 앤 리조트	조이 오브 스트링스
플리즈 프로젝트	극단 논다
다우텍스	그랜드오페라단
서울보험중개	골든에이지컴퍼니
좋은친구들	극단 예결
비씨에너지	이터널저니
휴먼푸드	KCO 첼로 앙상블
건축솔루션	헬로우 뮤지움
힐라코리아	상송 오페 연구회
벽산문화재단	프로젝트그룹 바다밥
삼정	극단 구리거울
가야조경	극단 해반드르
로쏘	마당극패 우금치
이브자리	조선풍류 정
신세계건축자산 그룹	음악극창작집단 통방

기업	예술단체
두남화학	문화홍신소
노블피아	광개토 제주예술단
교동식품	대전민예총
하나로유통	다산미술관
행복지수	서울국제음악제
크리앤조이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다진	브라보체(BRAVOCE) 대한민국남성합창단
뉴태양	바위처럼
신한기연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
구루미	고래
스타약품	하이카라
LG전자	창원예총
메인스트리트 인베스트먼트	위클래식
남명산업개발	경상오페라단
삼영폴리테크	부산캄머오페라단
건강일등약국	세이레 아트센터
한라산	듀라마더
컬러스테이	아트랩 와산
제이뮤직	브릴란테 브라스밴드
롯데관광개발	제주시티발레단
제이뮤직	제주팝스오케스트라
유로포트	오페라인제주
넥스트모빌, 보루네오가구제주대리점	제주국제실내악 스티벌조직위원회
동방아그로	제주칸투스합창단
스카이뷰	제주문화기획연구소
더스테이지	제주빌레앙상블
승진목재	서귀포실버악단
해늘종합건설	제주만화작가회
사운드스페이스	제니크 퀸텟
비에스디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
농협은행 (주)제주영업본부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
농협은행 (주)제주영업본부	제주오페라연구소
한림공원	클랑파베
동백호	제주한소리여성합창단
또가원	탐라풍류도-미리내
삼도종합건설	풍낭고양

기업	예술단체
더스테이지	아르모니아 뮤지칼레스 인 제주
모구리	춤집단 연지
경남개발공사	경남예총
경남스틸	경남 재즈오케스트라
경남자동차판매	경남 챔버쏘씨어터
경한코리아	경남오페라단
구구 좋은데이나눔재단	경남미술협회
국토보상원	경남연극협회
대흥알앤티	아미치 델라무지카
더나눔트레이딩	경상 콘서트콰이어
디자인나무	아트오페라 앙상블
로드투어	보현실버합창단
모산에프에스	양상블 이랑
미즈모아산부인과	경상캄머오페라단
백세한의원	김해신포니에타
(재)봉림장학회	세종국악회관
삼성폴리캠	페트라 싱어즈
삼신비엔에프	플루트 앙상블 비엔토
서울열처리	경남필청소년오케스트라
세인엔지니어링	진해예술촌
에스아이랩	한국문화예술교육협회
엠에스에듀	제나탱고
정익종합건설	경남피아노 듀오협회
좋은데이나눔재단	고성오광대보존회
좋은콘서트	극단이루마
중앙기업	창원 뉴아트오케스트라
지엠아이	벨라미치 예술단
참신한건설	극단현장
첨담한의원	큰들 문화예술센터
콘텐츠비	경상작곡가협회
한스엔터테인먼트	클랑피아노 앙상블
화인테크놀로지	코리안 드림신포니에타

※ 경남·제주메세나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매칭펀드 확대 (신규 결연 53건 발굴)

2000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는 예술지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이 공공 문화예술재단 및 기관의 공공형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추가로 매칭합니다.

참여대상

공공 문화예술재단 및 기관(국립기관 제외)

신청기간

2021년 3월 첫째 주부터 매칭펀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액

기업지원금		펀드교부금	
사업별 지원금액	기관별 지원총액	사업별 지원금액	기관별 지원총액
최소 500만 원 ~ 상한액 없음		최소 5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최소 500만 원 ~ 최대 5,000만 원

사업 추진 과정



기업	기관	사업
엠비피(MBP)		
고운꽃길 1038	세종시문화재단	2021 여민락 콘서트
동원유지		
농협은행 세종영업본부		
농협은행 부천시지부		
스페이스작1	부천문화재단	배리어프리 영화제
오즈하우스		
복지유니온	광진문화원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환경사랑 창작국악극 순회사업
크리에이트모어		2021 광나루 생태문화예술축제
프로젝터그룹 엔더		
한국남동발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21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
농협은행 진주시지부		
경남은행		2021 울산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S-OIL 온산공장	울산문화재단	제55회 처용문화제 시민문화마당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가입 지원 시민 홍보 캠페인
벽산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벽산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스킨 오브 樂 'Next Classic'
나래에너지서비스	송파문화재단	'우리동네 사용설명서' 문화예술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
아이렉스		
도영산업		
피엘엠		
피엔알엠	포항문화재단	2021 포항음악제
승유		
동산해운		
동성계전		
TBC문화재단		다문화소셜플랫폼
반야월연꽃마을 협동조합	대구문화재단	안심창조밸리 명소화를 위한 연꽃마을 힐링걷기 축제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예술가와 떠나는 예술여행 '원데이 아트투어'
어나더	광주문화재단	2021 미디어아트 양성 프로젝트 'Debut'
신한은행 강원도청지점	강원문화재단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에코 아트 캠프
벽산엔지니어링	종로문화재단	어린이병원 힐링플레이 프로젝트

기업	기관	사업
플러스건설		그린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북은행	전주문화재단	2021 전주마당창극 야간상설공연 '오! 난 토끼 아니오'
현대옥펜렌차이즈		위로와 힐링이 있는 '팔복다복(八福多福)' 음악회
아모레퍼시픽		2021 그림도시
신세계L&B	서울문화재단	2021 신세계L&B 공예분야예술지원 특화사업 'Room and More'
벽산파워	충북문화재단	벽산파워와 함께하는 '공간을 채우는 동네아트 프로젝트'
시티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2021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Musical 마지막 편지'
		찾아가는 공연 '樂樂'
전북은행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뉴미디어 아트 숲
벽산엔지니어링		벽산엔지니어링과 함께하는 '잘츠(sAlz) 콘서트'
스테들러코리아	세종문화회관	스테들러와 함께하는 여행드로잉 클래스
한화생명보험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케렌시아 콘서트

42





### 메세나 전국망 구축 사업

‘메세나 전국망 구축 사업’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등의 시행을 계기로, 문화예술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메세나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메세나 사업의 전국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부산메세나협회의 신규 설립을 지원해, 경남·제주·세종시메세나협회와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예술지원 참여를 촉진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 부분의 예술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 예술가치 확산 캠페인 ‘모두의 예술’

‘모두의 예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문화예술에 비대면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방송 캠페인입니다.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MBC를 통해 총 20회 방영된 ‘모두의 예술’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활동을 이어나가는 예술가들의 일상과 삶을 공유하는 ‘아티스트 스토리’ 코너, 아티스트에게 드로잉, 연기, 연주 등 간단한 예술 기법들을 배워보는 ‘배워서 예술’ 코너, 미술·공연·음악과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코너로 채워졌습니다.



###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 대비 메세나 활동이 미약한 시각예술 분야의 기업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형태의 공신력있는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우수전속화랑의 작가를 지원해 국내 유망 중견 미술작가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벽산엔지니어링, CJ문화재단이 참여하여 전희경, 안상훈, 정정주 작가에게 3년간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사업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사업’은 문화접대비 제도를 알리고 기업의 문화소비를 유도해 예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의 50%를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슬기로운 문화접대’ 사업을 운영하며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후원인증을 획득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 기획기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접대 사례를 소개하고 CBS, YTN의 4개 프로그램에 라디오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해 문화접대 확산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했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메세나 활성화 사업

‘중소·중견기업 메세나 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과 후원에 관심있는 기업인 네트워크 발족을 통해 메세나 저변을 확대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네오메디치 포럼’을 발족해 분기별 1회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명의 기업인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2021년에는 회원 기업들의 메세나 사례를 공유하고, 젊은 예술가 지원을 논의하는 등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문화공헌 사업

Cultural Contribution Business

보다 많은 이들이  
문화를 누리는 삶을  
만듭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출연기업들과 협력하여 문화소의 계층, 지역사회, 기업 임직원, 예술을 사랑하는 일반인 등과의 '문화나눔'을 위해 '찾아가는 메세나', 'Arts for Children' 및 'Access Arts'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문화공헌 사업을 통해 기업에 브랜드 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메세나

18<sup>건</sup>

27,350<sup>명</sup>

Arts for Children

17,412<sup>회</sup>

17,740<sup>명</sup>

Access Arts

129<sup>회</sup>

8,982<sup>명</sup>





문화공헌 사업  
Cultural Contribution Business

# 찾아가는 메세나

지역 · 사회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공헌 사업입니다.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 혹은 초청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 사회계층 간 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CJ 스테이지업 문화나눔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크라운해태 찾아가는 국악캠프

현대자동차그룹 군인의 품격





### CJ 스테이지업 문화나눔

#### 청소년 공연문화 활성화 및 극단 지원

2017년에 시작된 'CJ 스테이지업 문화나눔'은 지역적·환경적 제약으로 공연문화의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문화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공연예술분야의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 무대예술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고자 기획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8월 ~ 12월

#### 추진실적

- 2021 CJ문화재단 스테이지업 공간지원작, 연극 <클럽 베를린> 관람
- 공연 이후 출연진, 연출가 등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마련해 작품세계 및 제작에 관한 후속담 진행



###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 10년간 한결같이 전달한 희망의 메시지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2012년부터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과 가족, 병원 관계자들에게 오페라 음악을 선사하고 정서적 치유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병원 로비 음악회로 진행되는 '오페라 & 콘서트'와 환아들을 위한 '키즈 오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2월 ~ 12월

#### 추진실적

- 환아 및 가족, 한부모 가정 대상 창작 키즈 오페라 제공
- 비대면으로 키즈오페라를 즐길 수 있는 KIT박스 제작 및 전국 어린이 병원에 배포
- 코로나19 보건·의료 관계자 대상 오페라, 뮤지컬 갈라 콘서트 제공



### 크라운해태 찾아가는 국악캠프

#### 전국의 도서산간지역의 아동들을 찾아가는 캠프

'크라운해태 찾아가는 국악캠프'는 문화소외지역 초등 학교를 찾아가 원데이 예술캠프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봉산탈춤, 길놀이 등의 전통연희 및 국악기 체험, 크라운해태 뮤지엄의 과자놀이, 락음국악단·동락연희단의 공연 등 양질의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합니다.

#### 사업기간

2021년 6월 ~ 12월

#### 추진실적

- 기존 2박 3일 여름방학 캠프에서 안전한 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일일캠프 제공
- 전교생이 50명 내외인 문화소외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찾아가 전통문화 접근성 제고



### 현대자동차그룹 군인의 품격

#### 10주년을 맞이한 군 장병 문화소통 프로그램

'현대자동차그룹 군인의 품격'은 2012년부터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적인 군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는 군 장병에게 품격 있는 공연 및 강연을 제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의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자 기획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8월 ~ 12월

#### 추진실적

-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 박세리 감독, 야나두 김민철 대표, 심어송라이터 옥상달빛의 토크 콘서트 개최
- 국방부 IPTV, 현대자동차그룹 유튜브 채널로 송출하여 군 장병들에게 인사이트 제공



# Arts for Children

우리의 미래세대가 예술을 배우고 체험하게 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예술교육 사업으로 음악회·전시회 개최, 청소년 진로체험, 장르별 영재 육성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장기부터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고, 건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적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호타이어 나를 지켜줘
- 넷마블창문프로젝트
- 우리 꿈나무 아트클래스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On-Art School
-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
-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
- 한화예술더하기
-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 현대자동차그룹 아트드림 콩쿠르
- CJ 튜입음악교실
- KT&G복지재단 아름드리 음악미술교실
- LG 아트스쿨



수혜인원(23개교)  
4,297

## KUMHO TIRE *All-ways, Go With you*

### 금호타이어 나를 지켜줘

#### 안전교육과 예술을 접목한 영상 교육

‘금호타이어 나를 지켜줘’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6대 안전교육 중 교통안전교육을 예술과 접목시킨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서울 및 경기, 부산, 대구 등의 중학생들에게 교통안전교육과 사이버폭력/학교폭력 예방 영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1월

#### 추진실적

-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모티브로 영상을 제작해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함
-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마련에 기여



수혜인원(12개 기관)  
112

## 넷마블문화재단

### 넷마블창문프로젝트

#### 기술(Tech)과 예술(Art)의 만남

‘넷마블창문프로젝트’는 구로구 지역아동들의 문화 양극화 해소, 사고력 및 삶의 성취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놀이로 예술을 습득하고, 예술로 테크놀로지를 배우는 창의문화교육을 제공합니다. 넷마블 임직원 기부금에 넷마블문화재단이 금액을 더해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추진실적

- 온라인 영상과 키트를 활용한 수업 진행
- 디지털 시대에 맞춰 코딩과 미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 및 표현력 향상 도모



### 우리 꿈나무 아트클래스

#### 대화 중심의 미술 교육

‘우리 꿈나무 아트클래스’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이 사고를 확장하고 스스로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11월 ~ 2022년 4월

#### 추진실적

- 개별 태블릿 제공 및 ZOOM 플랫폼 활용으로 효과적인 비대면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체 참여자 중 30% 이상을 자영업자 자녀로 선정
- 수업 결과물 굿즈 제작 및 수익금 기부



수혜인원(10개 기관)

60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On-Art School

#### 인천 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On-Art School’은 인천 영종도, 중구 내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하고 예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6월 ~ 2022년 2월

#### 추진실적

- 예술강사 33명 참여
- 17개교 1,400여 명 학생들과 예술교육 진행



수혜인원(17개교)

1,455

###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

#### 지역 사회를 탐구하는 예술교육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은 임직원 급여 1% 기부금을 통해 포항·광양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예, 무용, 문학, 미술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예술적·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지역 예술가들은 열정적인 활동으로 아동들이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4월 ~ 12월

#### 추진실적

- 아동 스스로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탐구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교육 및 창작 활동 제공
-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을 중심으로 예술강사를 선발해 일자리 창출 기여



수혜인원(80개 기관)

1,099

###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 10주년을 맞이해 CSR에서 CSV로 확대

‘한성자동차 드림그림’은 미술적 재능을 지닌 학생을 지원하여 미술대학 진학과 아티스트의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미술영재 장학사업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심도있는 미술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중고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추진실적

- 재능기부 프로젝트 협업작품 서울시어린이병원 기증
- 드림그림 10주년 전시회 개최(예술의전당)
- 메타버스 졸업식 개최



수혜인원

1,480





###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

#### '무용'을 접목한 안전교육 콘텐츠

'한화손해보험 위기탈출 안전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하는 노하우를 체득할 수 있도록 기획된 무용장르 기반 안전교육입니다.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1년 6월 ~ 12월

- 추진실적
- 초등학교를 위한 LIVE 수업(화재, 물놀이 등 상황별 위기 대처법, 줄(rope)을 활용한 긴급 탈출방법, 안전 골든벨 등) 및 중학생을 위한 위기상황 대처방법 실습
  -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진행



수혜인원(30개 기관)  
1,764



### 한화예술더하기

#### 친환경을 주제로 한 창의예술교육

'한화예술더하기'는 3년마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며 매 시즌 새로운 모습으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초등학교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학생 진로탐색에 특화된 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했으며, 교육 콘텐츠 및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학생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청년 예술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업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4월

- 추진실적
- 업사이클링 공예, 송라이팅, 사진, 디자인 씽킹 기반 앱개발 등 친환경 주제의 정기교육 진행
  - 우유팩 업사이클, 전통민화, 이면지활용 북바인딩 등 원데이 아트 클래스 진행



수혜인원  
1,400



###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 음악성 발굴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악기를 한 번도 연주해본 적 없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악기의 세계를 알려주고, 앙상블 교육 및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업을 통해 재능을 발견한 오케스트라 단원에게는 전공자로 성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1년 1월 ~ 2022년 2월

- 추진실적
- 천안·청주지역 단원들과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파트별 수업 및 합주 추진
  - 공동 예술 작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 지원 및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 체득 기회 마련



수혜인원  
68



### 현대자동차그룹 아트드림 콩쿠르

#### 예비 음악가로서의 성장 발판 마련

'현대자동차그룹 아트드림 콩쿠르'는 환경적으로 음악가의 꿈을 펼치기 어려운 학생이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4년 제2회 아트드림 콩쿠르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레슨비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음악 교육과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1년 10월 ~ 2022년 8월

- 추진실적
- 장학금 및 레슨비, 문화예술체험 기회 지원



수혜인원  
1





### CJ 튠업음악교실

#### 위기 청소년 문화나눔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CJ 튠업음악교실'은 문화 소외 청소년들이 밴드음악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관 확립과 재능 개발의 기회를 지원하는 문화나눔 활동입니다. CJ문화재단의 신인 대중음악인 발굴·지원 프로그램 '튠업' 출신의 인디 뮤지션들과 '대중음악장학생'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9월 ~ 2022년 6월

#### 추진실적

-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밴드 악기교육 기관별 평균 40회 진행
-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음반 <17> 발매



수혜인원

134



### KT&G복지재단 아롬드리 음악미술교실

####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창의성·자아존중감 향상

'KT&G복지재단 아롬드리 음악미술교실'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의 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서울·경기·인천 권역 내 5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예술 강사를 파견해 음악과 미술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3월 ~ 12월

#### 추진실적

- 음악(악기교육, 뮤지컬 창작 등), 미술(회화, 공예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온라인 수업 진행
- 공감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등의 효과로 아동·학부모·교사의 높은 만족도 견인



수혜인원(473개 기관)

5,030



### LG 아트스쿨

#### 기술과 미술·무용·음악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

서울·수도권 지역의 초·중학생 대상 창의예술 프로그램으로 VR 미술교육, 코딩을 활용한 무용교육, 찾아가는 음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예술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 사업기간

2021년 5월 ~ 2022년 2월

#### 추진실적

- 총 18개교 840명 학생 대상 예술교육 진행
- 새로운 융합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 도모



수혜인원(27개교)

840

문화공헌 사업  
Cultural Contribution Business

# Access Arts

모두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Access Arts는 우수 문화예술단체 발굴·육성과 일반 시민들의 문화접근성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메세나 활동에 사업비를 출연하는 임직원들을 비롯해 고객과 이해관계자, 지역사회가 일상 속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산연강재단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스쿨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The Gift

한국수출입은행 아트씨드뱅크

한화생명 힐라힐러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수혜인원  
107

DOOSAN 두산연강재단

## 두산연강재단 두산아트센터 두산아트스쿨

### 청년 예비 예술가 양성 프로그램

2008년부터 진행된 '두산아트스쿨'은 예술가를 꿈꾸는 만 19~24세 청년들에게 현업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과의 교육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아트센터의 지원을 받는 젊은 예술가들이 튜터로 참여해 예술관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예술 창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사업기간

2021년 6월 ~ 2022년 1월

### 추진실적

- 희곡 윤성호 · 윤미현 작가, 연기/연출 김수정 연출, 연기제작 성수연 배우, 전통연희 이향하 국악창작자 등 현업 예술가들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창작워크숍 진행



수혜인원  
6,700

MetLife Foundation

##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The Gift

### 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후원

2019년에 론칭한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The Gift'는 역량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퓨전국악밴드 'AUX'와 장애·비장애 통합 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가 지원을 받았 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3월 ~ 2022년2월

### 추진실적

- 2020년 비대면 공연 지원과 음반 및 홍보용 스토리북 제작 지원에 이어 2021년에는 유튜브를 통해 두 단체의 콜라보 공연 생중계 방영



### K 한국수출입은행

#### 아트씨드뱅크

##### 신진작가 전시 지원

‘아트씨드뱅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옛 금고 공간을 갤러리로 조성하여 신진 현대미술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이 문화향유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4월

##### 추진실적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의 신진작가 공모 당선자 대상 개인전 2회 제공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및 교사 대상 전시 및 공연관람 기회 제공



수혜인원  
162

### 한화생명

#### 한화생명 힐라힐러

##### 콜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한화그룹에서 12년 동안 진행해온 아동·청소년 문화 예술교육인 ‘한화에술더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 공헌활동으로, 고객접점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인 전화상담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콜센터 상담사의 정서적 치유를 돕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 사업기간

2021년 5월 ~ 2022년 3월

##### 추진실적

- 가야금, 칼림바, 마술 등 총 7개 장르의 예술수업 진행
- 서울, 대전, 부산 소재 한화생명 콜센터 상담사 참여



수혜인원(55개 기관)  
567

### GS칼텍스

####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

##### 문화예술을 통한 취준생의 회복탄력성 향상

‘GS칼텍스 취준동고동락’은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유명 인사들의 특강 및 문화예술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불안감을 겪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21년 7월 ~ 12월

##### 추진실적

- 인문학 특강, 심리 상담소, 창작 뮤지컬로 구성된 <에너지 플러스 콘서트>
- 연극·미술 등을 활용한 정서 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에너지 플러스 워크숍>
- 3주간의 SNS 기상 인증 챌린지 <미라클 모닝 동고동락 챌린지>



수혜인원  
1,446

## 조사·연구·학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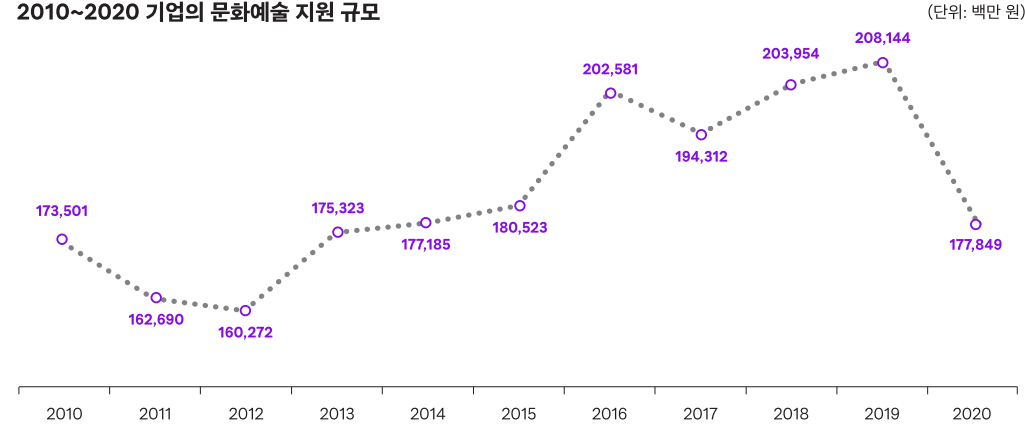
Academic & Research Business

### 2020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국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통계자료인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분야별 지원금액, 지원 목적 및 방식, 관련 기업들의 인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매경회사연감 자료 기준) 및 기업 출연 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등 총 695개 사  
**조사응답** 275개사(응답률 39.6%)  
**조사기간** 2021년 3월 ~ 6월(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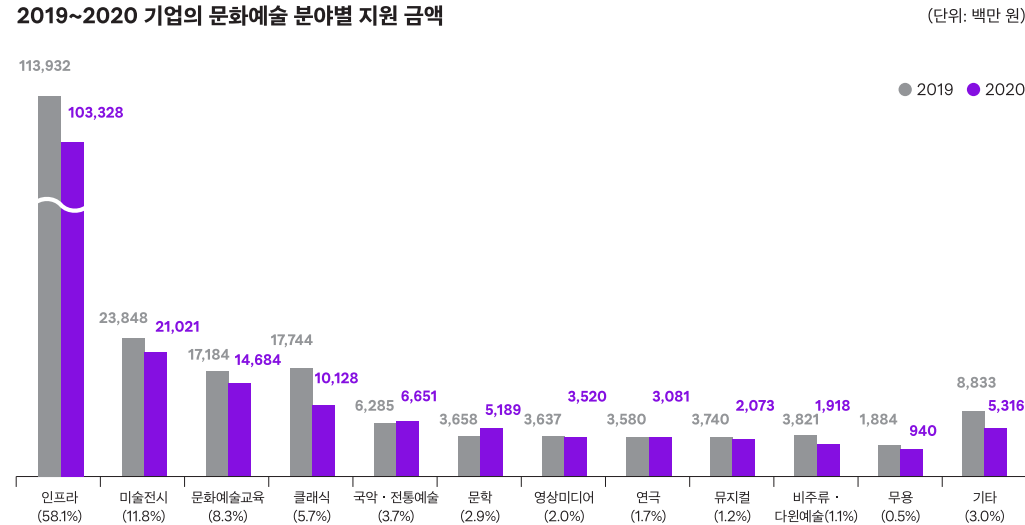
#### 2010~2020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 조사 결과 요약

- 2020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778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문화예술 지원 건수는 953건으로 전년 대비 33.4% 줄어 코로나19의 여파로 2017년부터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관객과 대면하며 현장에서 소통해온 문화 예술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침체되면서, 줄어든 문화예술 활동만큼 기업의 지원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2020년 한 해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 인프라 분야(공연장,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등)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9.3%(106억 400만 원) 감소했으며, 순수예술 분야 중 전통적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클래식 분야는 전년 대비 42.9%(76억 1,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 2019~2020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



#### 2020 문화예술 지원 상위 10개 재단

순위	기업명
1	삼성문화재단
2	롯데문화재단
3	LG연암문화재단
4	두산연강재단
5	GS칼텍스재단
6	현대차 정몽구 재단
7	CJ문화재단
8	대산문화재단
9	금호문화재단
10	KT&G복지재단

#### 2020 문화예술 지원 상위 10개 기업

순위	기업명
1	KT&G
2	현대백화점
3	현대자동차
4	DL이앤씨(구 대림산업)
5	크라운·해태제과
6	삼성화재
7	부산은행
8	현대중공업
9	신세계백화점
10	한화생명

### 2021 문화접대비 사용 현황 조사

'2021 문화접대비 사용 현황 조사'는 법인의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지출 현황과 문화접대비 세제에 대한 인식수준 파악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2021년 조사 보고서에는 2019~2020년 신고분(2018~2019년 귀속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2021년 6월 ~ 7월(2개월)  
**조사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대기업(총 1,000개)  
**조사기관** (주)아테나컴퍼니/한미회계법인  
**조사방법** FAX, Mail 조사

#### 2010~2020 연도별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및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신고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접대비 신고금액	76,658	83,535	87,701	90,068	93,368	99,685	108,952	106,501	107,065	111,641	117,469
문화접대비 신고금액	44	49	45	45	48	90	75	94	89	121	105
접대비 대비 문화접대비 비율	0.06%	0.06%	0.05%	0.05%	0.05%	0.09%	0.07%	0.09%	0.08%	0.11%	0.09%

#### 조사 결과 요약

- 2019년, 2020년 신고된 전체 접대비 규모는 각각 11조 1,641억 원과 11조 7,469억 원이었으며 이중 문화접대비는 2019년 121억 원, 2020년 105억 원으로 신고됐습니다.
- 조사대상 중 약 13.6%가 문화접대비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발생한 기업의 수는 10% 내외였습니다.
- 문화접대 수단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식은 '입장권'을 통한 문화접대로 공연·전시·박물관 입장권은 53.8%로 밝혀졌습니다. 문화접대 활용을 위해 도움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소는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로 손꼽혔습니다.
- 조사대상 중 75.4%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접대가 위축됐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7.7%는 코로나 시대의 문화접대 활성화 수단으로 '연택트 시대에 적합한 문화접대상품 개발'을 꼽았습니다.



## 한국메세나대회

Mecenat Awards



한국메세나협회는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1999년부터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보완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메세나대상은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한국메세나대회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 MECENAT AWARDS

## 메세나대상 시상식



‘메세나대상’은 우리나라 예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메세나 시상제도입니다.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폭넓은 문화공헌 활동을 사회여론에 알리고,  
기업들의 메세나 참여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021 메세나대상 수상 기업

#### 대상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창업자인 서성환 선대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을 기반으로 1979년 '태평양박물관'을 설립한 이래, 2009년 '아모레퍼시픽미술관'으로 개관하여 다채로운 기획전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4년간 지속해온 대표적인 예술 후원 사업 '설화문화전'을 통해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신인 영화인들의 등용문인 '미장센 단편영화제'를 20년간 개최, 여성 연출가 후원 등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고 소통하는 독보적인 메세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문화공헌상 KT&G장학재단

KT&G장학재단은 청소년들의 학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바른 인재를 육성한다는 모토로 2008년에 설립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서울예고 등 예술 전문 교육기관과 손잡고 문화예술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 꿈나무들의 중학교부터 대학교 진학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큰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메세나인상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

이왕준 이사장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솔로이스츠 등 다수의 기관과 단체들을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일산 명지병원에 예술치유센터를 설립하여 음악, 미술, 연극 등을 활용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30회에 이르는 '한낮의 로비음악회'를 매일 열었으며 병동으로 찾아가는 '베드 사이드 콘서트', 매년 5월마다 주최하는 '예술치유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 창의상 한화손해보험

국내 보험 역사의 산증인 한화손해보험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아동·청소년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무용을 기반으로 한 '위기탈출 안전교육'을 7년째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3년간의 세실극장 임대료 후원을 비롯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2009년부터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교육을 전한 '한화예술더하기' 등을 통해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A&B상 삼성SDI & 하트-하트재단

삼성SDI는 '함께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이라는 CSR 비전 하에 '재능키움 컴퍼니' 프로그램을 만들어 2007년부터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하트-하트재단에 장학금과 레슨비를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삼성SDI와 하트-하트재단은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며 장애인 문화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은 한 해 동안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예술단체 관계자들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에 장기간 참여하여 모범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 커플을 대기업 부문과 중소·중견기업 부문으로 나눠 '올해의 베스트 커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2021 올해의 베스트 커플



#### 대기업 부문 설원량문화재단 & 페스티벌 오원

페스티벌 오원은 한국의 대표적 첼리스트인 양성원 교수가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가교역할을 하고자 2011년에 시작한 페스티벌입니다. 설원량문화재단과 페스티벌 오원은 2017년부터 후원 협약을 맺고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 커플로 참여했습니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의 무대에 올랐으며 한국의 아티스트를 유럽에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며 문화 교류에 앞장섰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부문 진성테크 & 대건챔버라이어

전기 종합자재 전문 기업인 진성테크는 2014년부터 대건챔버라이어와 연을 맺어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단체는 정기연주회에 기업의 임직원 및 가족을 초청하고, 생소한 시대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연주 전 리허설을 참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연말에는 기업의 임직원과 단체의 단원들이 만나 교류하는 자리인 '결연 감사의 밤'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 회원 서비스

Member Service



**회원 음악회** ‘회원 음악회’는 문화사업 및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회원사 임직원과 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 시작된 이래 회원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동료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 회원 음악회는 크리스마스 시즌 최고의 스테디셀러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 초청하여 유니버설발레단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문화KIT 제공**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직접 대면을 통한 회원서비스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사회 트렌드를 다룬 도서와 코로나 방역 용품을 KIT 형태로 전달하며 비대면으로나마 회원들과 교류했습니다.

**메세나 Members Only** ‘메세나 Members Only’는 회원사 간의 공연, 전시 및 제품에 대한 특별 할인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새롭게 시행한 회원 서비스입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공연, 전시, 파라다이스 도고 리조트, 레우토 쿨매트 등 메세나 회원사들을 위한 할인 서비스를 안내했습니다.

**메세나 Arts Friends** ‘메세나 Arts Friends’는 다양한 장르의 전문 예술가들을 기업에 파견하여 예술가들의 창의적 열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제공하는 회원서비스 프로그램으로 2021년에는 총 4회 진행했습니다. 회원사 내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직원들의 창의성 개발 및 직무 교육으로도 활용돼 직원 간 감성나눔, 조직문화 개선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평입니다.

**A&B포럼** ‘A&B포럼’은 Arts&Business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결연 기업 및 문화사업 담당자들의 문화예술지원 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7년 발족된 정보·학술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대표적인 메세나 및 문화마케팅 실무 책임자 모임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A&B포럼 회원사들의 문화공헌 동향을 정리한 ‘메세나 이슈 리포트’ 발송으로 대면 행사를 대체했습니다.

**주간 메세나** 한 주간의 메세나, 문화예술 등에 대한 언론 기사를 선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매주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ESG 등 최신 동향 및 주요 뉴스를 압축해 담았습니다.

#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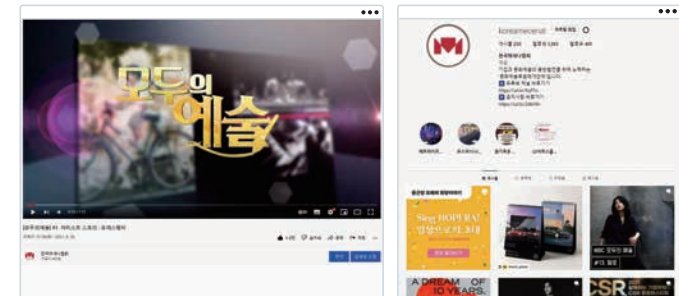
## 언론홍보

협회 홍보 이슈 발굴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1,900건의 기사가 노출되었습니다. 본회 기자간담회,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협력 기업 대표자 인터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SNS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1,305명, 유튜브 누적조회수 154,66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간행물



『메세나』지는 호당 1만부 발행하고 있으며, 본회 사업뿐만 아니라 메세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심도있는 콘텐츠로 반경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트 컬렉션의 가치’, ‘국악의 부활과 뉴트로’, 롤렉스·BMW의 문화예술 후원 등을 다루었습니다.

## 뉴스레터

기업 및 일반 회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본회 소식을 전하는 ‘Mecenat Zoom In’과 기업결연 소식을 중심으로 한 ‘A&B PLUS’를 각각 월 1회 발행했습니다. 기업과 협력해 진행하는 문화사업 소식, 해외 메세나 이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연차보고서

협회 연간 활동 및 결산을 보고하는 연차보고서를 해마다 발행합니다. 연차보고서는 협회 회원사 및 유관 기업,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1,000부 배포했습니다.





##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제 28(당)기[2021/01/01 ~ 2021/12/31]		제 27(전)기[2020/01/01 ~ 2020/12/31]	
	금액		금액	
<b>자산</b>				
I. 유동자산	3,409,094,291		3,774,691,808	
(1) 당좌자산	3,409,094,291		3,774,691,808	
보통예금	3,048,347,366		3,752,636,808	
단기금융상품	300,000,000		0	
미수금	46,401,500		22,055,000	
선급금	14,345,425		0	
(2) 재고자산	0		0	
II. 비유동자산	801,161,902		74,958,901	
(1) 투자자산	701,065,425		0	
장기금융상품	701,065,425			
(2) 유형자산	50,395,477		25,257,901	
비품	107,597,900	68,107,900		
감가상각누계액	57,202,423	42,849,999		
(3) 무형자산	1,000		1,000	
상표권	1,000		1,000	
(4) 기타비유동자산	49,700,000		49,700,000	
임차보증금	49,700,000		49,700,000	
<b>자산총계</b>	<b>4,210,256,193</b>		<b>3,849,650,709</b>	
<b>부채</b>				
I. 유동부채	2,473,063,725		2,144,960,120	
미지급금	103,391,292		97,199,838	
예수금	7,851,930		7,507,408	
부가세예수금	9,089,625		7,590,909	
선수금	2,322,980,483		2,000,231,105	
예수제세	29,750,395		32,430,860	
II. 비유동부채	0		0	
<b>부채총계</b>	<b>2,473,063,725</b>		<b>2,144,960,120</b>	
<b>순자산</b>				
I. 보통순자산	1,737,192,468		1,704,690,589	
<b>순자산총계</b>	<b>1,737,192,468</b>		<b>1,704,690,589</b>	
<b>부채와 순자산총계</b>	<b>4,210,256,193</b>		<b>3,849,650,709</b>	

## 운영성과표

(단위: 원)

과목	제 28(당)기 [2021/01/01 ~ 2021/12/31]		제 27(전)기 [2020/01/01 ~ 2020/12/31]	
	금액		금액	
<b>1. 수 입</b>		<b>16,552,846,828</b>		<b>13,916,205,120</b>
AB사업(국고기금)	4,309,962,498		3,053,815,553	
AB사업(기업 매칭)	2,552,500,000		1,942,000,000	
대기업결연사업	1,278,082,000		1,149,650,000	
문화공헌사업	7,113,872,930		6,459,760,476	
회비수입	744,300,000		765,618,182	
사업협찬금	304,129,400		275,590,909	
기타사업	0		0	
지정후원금(비회원사)	250,000,000		269,770,000	
<b>2. 지 출</b>		<b>16,526,403,160</b>		<b>13,418,225,612</b>
인건비	786,334,942		681,947,107	
직원급여	540,544,159		467,067,290	
상여금	153,014,821		137,272,293	
퇴직급여	92,775,962		77,607,524	
일반관리비	655,142,622		533,726,491	
복리후생비	62,561,090		57,720,160	
접대비	9,208,500		10,124,400	
통신비	25,933,734		28,424,890	
세금과공과금	106,494,669		95,235,638	
지급임차료	95,854,000		89,935,000	
도서인쇄비	96,374,183		68,082,109	
행사진행비	128,209,261		59,749,031	
지급수수료	26,677,061		16,009,462	
회의비	11,266,895		14,287,725	
유지보수비	6,854,945		21,465,015	
용역비	8,890,320		4,804,940	
업무추진비	16,433,090		15,479,170	
기타관리비	60,384,874		52,408,951	
사업비	15,084,925,596		12,202,552,014	
A&B사업비(국고기금)	4,309,962,498		3,053,815,553	
A&B사업비(기업 매칭)	2,552,500,000		1,942,000,000	
기업결연사업비	1,278,082,000		1,149,650,000	
문화공헌사업	6,651,005,521		5,755,880,093	
기타사업비	43,375,577		31,436,368	
지정후원사업	250,000,000		269,770,000	
<b>3. 총 수 익</b>		<b>26,443,668</b>		<b>497,979,508</b>
<b>4. 기타 수입</b>		<b>6,058,216</b>		<b>4,923,838</b>
<b>5. 기타 지출</b>		<b>5</b>		<b>267</b>
<b>6. 당기순이익</b>		<b>32,501,879</b>		<b>502,903,079</b>



## 감사보고서

본 감사는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회의 제28기 사업연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감사방법의 개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입회·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4일  
사단법인 한국메세나협회

감사 김기균 

감사 윤영석 

Press Release





매일경제

2021년 3월 4일 목요일 A31면 문화

# 메세나협회 신임 회장에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사진·74)이 3일 제11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메세나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김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메세나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반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을 맡은 김 회장은 음악, 미술, 연극 등 폭넓은 예술 분야를 꾸준히 후원해 온 ‘메세나 전도사’로 정평이 나 있다.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 창단의 산파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 광주비엔날레 이사를 역임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첼로, 바이올린 등 고악기를 신진 연주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펼쳐왔다.

미술 컬렉터로도 알려진 김 회장은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인 현대

미술관회 회장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진행된 ‘세종 컬렉터 스토리展-김희근展’을 통해 소장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벽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12년부터 ‘벽산희곡상’을 제정해 희곡 작가의 창작을 지원하고 있다. 고 윤영선 연출가를 기리는 ‘윤영선연극상’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11년 메세나대상 ‘메세나인상’을, 2013년 ‘몽블랑 예술 후원자상’을 수상했고, 2020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문화예술후원자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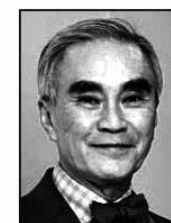
오수현 기자

서울경제

2021년 3월 4일 목요일 A31면 피플

# “기업·예술 동반성장에 힘쓰겠다”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한국메세나協 회장에 취임  
연주자에 고가 악기 지원  
남다른 미술 사랑도 유명



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하며 첼로·바이올린 등의 고악기를 신진 연주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세종솔로이스츠·한국페스티벌

김희근(사진)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이 3일 열린 한국메세나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 제11대 회장(임기 3년)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메세나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업·임직원·수혜자,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업과 문화 예술의 동반 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 광주비엔날레 이사, 세종솔로이스츠 명예이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포럼 회장,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문화 예술 장르에 대한 후원과 메세나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음악 부문에서는 스트라디바리우스소

앙상블·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많은 음악 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남다른 미술 사랑도 유명하다. 평소 “미술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작가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라 단순한 구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해온 그는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인 현대미술관회 회장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조직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세종 컬렉터 스토리전(展)-김희근展’을 통해 소장품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10년 문화 예술 단체 후원과 후진 양성을 위해 벽산문화재단을 설립, ‘벽산희곡상’과 ‘윤영선 연극상’을 운영하며 연극계 발전을 위해서도 힘써왔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The JoongAng

2021년 3월 4일 목요일 018면 종합

##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장

한국메세나협회는 3일 제11대 회장에 김희근(사진)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3년.



파이낸셜뉴스

2021년 3월 4일 목요일 030면 피플

##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75·사진)이 3일 제11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메세나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업, 임직원, 수혜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계적 현악 앙상블로 손꼽히는 세종솔로이스츠 창단의 산파 역할을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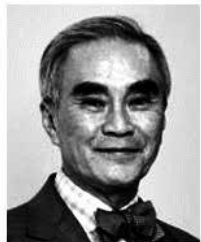


### 한겨레

## 한국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 선출

한국메세나협회는 3일 서울 조선히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에 김희근(사진)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을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은 2012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을 맡아 기업인들을 예술후원 활동으로 이끌어온 '메세나 전도사'로 유명하다. 그는 현악 앙상블인 세종솔로이스츠 창단의 산



동하고 있다. 벽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12년부터 '벽산희곡상'을 제정했다. 연합뉴스

2021년 3월 4일 목요일 019면 사람

파 노릇을 했으며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다. 미술 컬렉터로도 꼽히는 그는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인 현대미술관회 회장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

###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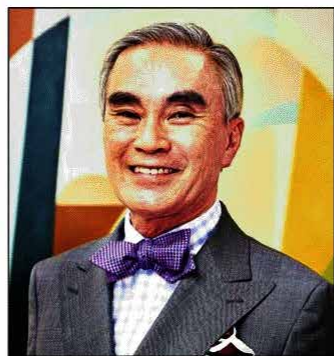
## 3년간 한국 메세나協 이끌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기업·예술 동반성장에 메세나는 필수”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사진)이 3일 한국메세나협회장에 선임됐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열어 제11대 협회장으로 김 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1994년 기업인을 중심으로 설립돼 현재 220여 개 기업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을 맡아온 김 회장은 주변 기업인들에게 예술 후원의 필요성을 설파해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전도사'로 유명하다.

김 회장의 문화예술 후원은 장르를 불문한다. 1994년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 창단을 주도했고, 지금은 악단 명예이사장으로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 광주비엔날레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무포럼 회장과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장도 맡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후원회인 현대미술회 회장과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조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윤상운 환경우 김성환 김명범 등 유망한 미술 작가들을 수년 동안 지원해 창작활동에도움을 주기도 했다. 해외 미술 프로젝트 후원에도 도움이



현악 앙상블 세종솔로이스츠 창단 벽산희곡상·윤영선연극상 제정 미술작가 창작·국제교류 뒷받침 메세나인賞 받은 '메세나 전도사' '메세나는 우리사회 행복에 필수'

손길을 내밀었다. 국제근현대미술관위원회(CIMAM)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동북아시아 미술 큐레이터들이 참여하도록 경비를 지원해 이들이 국제 미술가

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한국 미술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2017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열린 한국 미술사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올가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펼쳐질 '아방-가르드: 1960~1970년대 한국의 실험 미술'전을 위해서도 미술관 연구원들의 한국 연구활동 경비를 제공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2010년 벽산문화재단을 설립한 데 이어 2년 뒤 '벽산희곡상'을 제정했다. 고(故) 윤영선 연출가를 기리는 '윤영선연극상'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메세나대상에서 '메세나인상', 2013년 '몽블랑 예술후원자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문화상 문화예술후원자상'을 받았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메세나는 기업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기업과 임직원, 이해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며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2021년 3월 4일 목요일 A32면 people

### 매일경제

## ‘메세나 네트워크’에 온 힘… 팔걷고 전국 기업인 만날것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A31면 문화

김희근 신임 한국메세나협회 회장(74)이 1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인 김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메세나협회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제11대 회장에 선출됐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일컫는 메세나(Mecenat)는 로마 제국의 정치가로 예술가를 후원했던 마에케나스에서 유래한 프랑스어다. 메세나협회는 1994년 주요 경제단체들의 발의로 창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19개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김 회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 후원을 이끌어낸 강력한 수단인 매칭펀드"라며 매칭펀드 활성화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메세나협회가 2007년 출범한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이 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문예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칭펀드 사업에 41억원이 투입됐다.

"예술 후원을 하는 기업 중에서도 매칭펀드를 잘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 기업 하는 후원을 매칭펀드로 하면 수혜자는 2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홍보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후원에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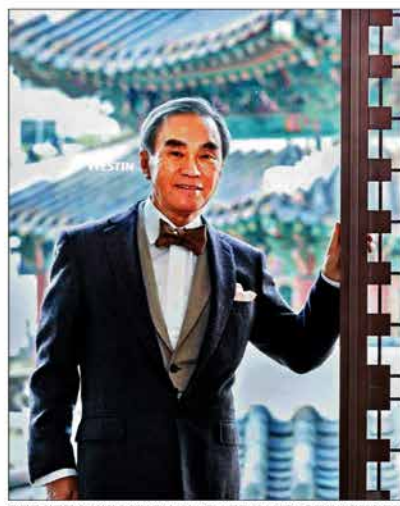
김희근 신임 메세나협 회장 메세나는 기업의 사명 10대 문화대국 밑거름 기대 기업인에 매칭펀드 적극 홍보 단독 후원 벽산 중소기업 공동 메세나 프로그램도 구상 상속세, 부동산 물납은 되고 미술품 물납 막는건 안돼 정부, 문화자산 깊이 생각해야

새로 나이가 꽤 많잖아요. 저보다 최소 10년 손아래 기업인들을 만나 함께 메세나 활동을 하고 압박생각이예요 (웃음).

김 회장은 메세나협회 회원사들이 주로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러 기업이 함께하는 공동 후원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기업에서 하는 후원 프로그램 중 중소기업에도 해볼 만한 프로그램을 가져올 생각이예요.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처럼 단독 후원에 나서긴 지금 어려서 쉽지 않아요. 메세나협회 가 나서서 여러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후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죠. 임기 동안 전국의 기업인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메세나 활동을 설득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다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수도권에 편중된 메세나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이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메세나협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직후 활짝 웃고 있다. (이충우 기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겁니다. 현재 지역 메세나 단체가 설립된 곳이 경남, 대구, 세종인데 부산과 광주에도 메세나 단체 설립을 지원해 문화예술의 지역 편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역 특성의 매칭펀드와 연계하면 속도가 날 것 같아요."

벽산그룹 창업자인 고 김인득 회장

말을 정도로 미술에 조예가 깊다. 2012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온 김 회장은 클래식, 미술, 연극 등에 대한 각종 후원으로 '메세나 전도사'로 유명하다.

김 회장은 이건의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미술계에 이슈화된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부동산 물납은 되고 미술품 물납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의 회장은 최고 작가들의 최고 작품들을 수집했어요.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결국 (미술품) 옥석을 통해 판매할 텐데 이 작품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미술관들의 연간 미술품 구입 예산으로는 세계적인 미술품을 수집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번 일이 우리나라의 문화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삼성사에서 미술품을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할 수 있다는 최근 매일경제신문 보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작품 판매수수료 등 유동비용도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고가의 작품일수록 현금 물납을 위해 판매될 경우 작품의 가치와 비례해 막대한 유동비용을 지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금 물납을 위해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면 30~50%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미술품 물납제를 하지 않으면 미술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시기와 법,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수현 기자



### ▶ He is...

△1946년 경남 진주 △경고 △한양대 공업경영학과 △마이에미대 명예박사 △2002년~현재 세종솔로이스츠 명예이사장 △2009년~현재 한국국제아트페어 조직위원장 △2010~2017년 코리아심포니 오케스트라 7대 이사장 △2011~2014년 광주비엔날레 이사 △2011~2015년 예술의전당 후원회 이사-부회장 △2017년~현재 현대미술관의 회장



# “기업가 책임정신이 예술 후원의 시작”

###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장 “미술품 물납제 도입해야”



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 회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술품 ‘물납제’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문화 예술 소양을 갖추는 것이 절실합니다.”

11대 한국메세나협회장으로 취임한 김희근(사진)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10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불투명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문화 예술 후원(메세나)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가의 책임정신이 예술 후원의 시작”이라며 뉴노멀 시대에 기존 패러다임을 탈피한 새로운 문화 공헌 유형을 찾아 메세나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 재구축’을 제시했다. 기존의 서울·경남·제주·대구·세종에 더해 부산과 광주에 메세나 단체 설립을 지원해 문화 예술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전국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연합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메세나 지역 특성화 매칭 펀드를 연계해 메세나의 전국 확산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문화 접대를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 예술 기부금 및 관련 교육 훈련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법 추가 개정 추진에도

연급했다. 그는 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로 납부하도록 하는 물납제를 “말할 필요 없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간송미술관이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에 내놓은 데 이어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이후 삼성가의 소장품에 대한 가격 감정(鑑定)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내 문화 예술계에서는 문화유산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서라도 물납제 대상에 미술품과 문화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허용을 할지가 관건”이라며 “시기와 법 문제가 있지만 미술품 물납은 (방향적으로는)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기업의 문제를 떠나서 문화 자산 보호와 유명 작품의 향유를 통한 미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귀한 해외 작품을 해외에서 팔아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국내에서는 ‘우리 것만 잘 보 관하고 있자’는 얘기가 된다”며 작품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도 예술로 표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 “미술품 물납제 당연히 필요... 감정·세금문제 해결돼야”

### 김희근 메세나협회장 취임 간담회 “미술시장 활성화 위해서 도입해야”



최근 문화예술계에선 지난해 타계한 이견희 삼성 회장이 남긴 문화재와 미술품을 상속세 일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다시 떠올랐다.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김희근(사진)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도 공시지가라면서 ‘세금 납부를 위해 미술품이 해외로 반출되면 그것대로 또 못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물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미술 외에도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해 왔다. 현악 합주 단체인 세종솔로이스츠를 창단해 명예이사장으로 후원하고 있고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사장, 광주비엔날레-예술의전당 후원회 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 3월 11대 메세나협회장이 된 그는 “코로나19로 기업 경영 환경이 힘들어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기존 패러다임을 탈피한 새로운 문화공헌 유형을 찾아 메세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를 재구축해 서울, 경남, 대구, 세종에 이어 부산, 광주에서도 메세나 단체를 설립해 문화예술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경제와 예술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1994년 설립됐다. 이달 기준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지원하는 229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정부 손 닿지 않는 곳까지 예술 채워 나갈 것”

###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 간담회 “정부 손이 닿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기업 메세나가 채워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최근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임 회장직을 맡게 된 소감과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음악, 미술, 연극 등 폭넓은 장르를 꾸준히 후원해온 것으로 유명한 김 신임회장은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 대기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이날 “지난 70년간 우리 모두 열심히 살고 공부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에 모두가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생각해보면 문화예술을 생략해서 행복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보다 문화예술 지원 예산이 많은데 일부에서는 아쉬움을 전다. 정부 권력의 손이 못 미치는 곳을 기업이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메세나”라면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활발하게 해서 같이 동반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기업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형 펀드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메세나협회에서 진행 중인 모그림 중 제일 강한 불이 대형 펀드다. 특강은 비용을 내더라도 수혜자는 다들 받는다. 이것은 대형펀드를 활성화하는 문화패키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인적 재능 없지만 예술 통해 행복하게 음악·미술·연극 등 폭넓은 장르 꾸준히 지원 문화예술 후원, 중소기업까지도 동참 이끌 것 국내 기업 소장 미술품, 해외 유출 저지 위해 문화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세제 지원 꼭 필요

가속들이 원유할 수 있게 한다. 거기에는 대형 펀드가 주요 수단이다. 김 신임회장은 “세종솔로이스츠 수도권에 있는 중·고등학교 가서 기초를 설명해주고 알레시아 연주해준다. 이걸 들은 학생들은 집에 가서 가족에게 이야기한다.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런 패키지를 기획 상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네스드 플랫폼’ 모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벽산엔지니어링이 후원하는 세종솔로이스츠 지역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연주회를 들려주는 문화버스 프로그램이다. 일회적 후원보다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자 한다고 강조한 김 신임회장은 “전국의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기업에서 해왔던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연합해 메세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의되는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또는 국내 미술관들의 연간 미술품 구입 예산으로는 세계적인 미술품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상속세를 납부 하려면 결국 국익을 통해 판매가 될 텐데, 해외의 미술품 부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구매해 이 작품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자산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회장은 또 “정부의 힘만으로 문화예술 발전이 모든 것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메세나 활동은 국가의 손이 닿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기업과 기업이 채우는 행위인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부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술이아말로 사랑을 행복하게 해주는 필수요소라고 강조한 김 신임회장은 “개인적으로는 말만 쓰고 없다. 그러나 예술인들을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 예술가들이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현재 세종솔로이스츠 명예이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포럼 회장,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2011년 메세나대상 ‘메세나인상’, 2013년 ‘문화공헌 대상’, 2005년 ‘서울특별시 재구축할 뜻도 밝혔다. 현재 활동 중인 서울, 경남, 제주, 대구, 세종시에 이어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도 메세나 단체 설립을 지원해 문화예술의 지역편중을 해소하고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미술영재 육성 '드림그림' 10주년... 또 다른 미래를 그리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가 전자적 지원과 의지로 운영하는 미술영재 장학프로그램 '드림그림'이 출범 10주년을 맞아 한 단계 도약한다. 한성자동차는 지난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드림그림 발대식에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를 도입한 '드림그림 2.0'을 발표했다. 드림그림이 10주년을 맞아 한 차원 더 진화하는 것이다. 한성자동차는 앞으로 드림그림을 사회적 가치와 함께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적 구조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드림그림 10기 온라인 발대식에서 울프 아우스트롬 대표(오른쪽 둘째)가 '드림그림 2.0'의 방향성인 CSV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성자동차]

'드림그림'은 2012년 시작돼 그간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사회에는 예술을 통한 힐링을 제공하고 각종 전시회와 페어 참여를 통해 국내 예술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드림그림 엔지니어' 등 CSV 프로그램 한성자동차는 2021 드림그림 발대식에서 2021 드림그림 슬로건 'Share & Realize Our Dreams Together'도 선언했다. 드림그림의 따뜻한 마음과 재능을 사회 및 다양한 수혜자와 나누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울프 아우스트롬 한성자동차 대표는 발대식 축사에서 "드림그림 10주년을 맞아 선조하는 '드림그림 2.0'을 통해 수혜의 방향성이 대중과 사회로 폭넓게 확대되길 바란다"며, "장학생들이 예술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드림그림은 앞으로도 구성원을 비롯한 사회의 많은 이들과 가치를 공유해 사회에 유익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CSV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드림그림 아트키트(Art Kit)'를 들 수 있다. 드림그림 장학생이 직접 미술교육을 위한 키트(KIT)와 온라인 동영상

을 제작해 약 100개 지역아동센터, 약 1000명의 초등학생에게 보급하고, 이들에게 미술 교육을 제공한다. 드림그림 장학생은 이를 통해 드림그림의 수혜자가 아닌 시혜자로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게 된다.

또 '드림그림 엔지니어(Young

장학생에게 경제적·교육적 지원 대학생 멘토에겐 창업 기회 제공 대중과 예술 가치 공유 폭도 확대

Designer)'를 통해 미술 전공 대학생 멘토들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 제작 및 고유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창업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멘토들은 신진 디자이너로서 입문할 기회를 얻고, 사회적으로는 예술 분야의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대중·사회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 대중과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드림그림은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예술이 필요한 지역과 환경에 작품을 설치·기증하는 재능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지난해는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아동청소년과에 작품을 기증했으며, 올해는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디자인을 통해 낙후지역 또는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을 위한 예술, 모두를 위한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드림그림은 선발된 장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제공한다. 2012년 시작 당시 20명이었던 수혜 장학생을 2015년 40명으로 확대했다. 한성자동차 임직원으로 구성된 엔지니어들이 장학생·멘토와 1:1로 매칭돼 서포터 역할을 하며,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과 직업상담도 하는 등 든든한 결속을 이루고 있다.

드림그림 10기 발대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성자동차 울프 아우스트롬 대표, 드림그림 장학생과 멘토, 한성자동차 임직원 엔지니어들이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랜선 발대식에 참석했다. 올해 드림그림에 합류한 4명의 장학생과 4명의 멘토, 5명의 엔지니어를 환영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발대식에서 9년간 드림그림 장학생 활동을 한 박주희 씨(서울예술대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1학년)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작품에 대해 발표하는 경험, 작가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들이 예술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드림그림 멘토로도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해부터 상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

## 1%의 나눔,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다

### ■ 포스코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와 포스코그룹사, 협력사 임직원들이 매달 임금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임직원의 기부금만큼 회사에서 후원해 매칭그랜트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국내 대표적인 재단법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재단이 모은 기부금 수입은 약 106억 7899만원. 여기에는 회사의 매칭을 포함해 기부금 수입 104억 8401만원과 이자수익 1억 9000만원가량이 포함됐다. 재단은 이 중 약 95억원을 활용해 미래세대, 다문화가정, 장애인, 문화예술 사업 등을 지원했다.

### 사회 구성구식 미치는 '1%의 힘'

재단의 대표사업은 ▲미래세대 자립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장애인 자립지원 ▲문화예술 지원사업 ▲기타 소외계층 지원이다. 지난해에는 총 500여명 중 미래세대 지원에 약 36억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약 11억원, 장애인 지원에 약 25억원 등을 활용해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존 중점지원 대상인 미래세대,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넘어 문화예술 분야까지 확대하면서 장애예술인 대중화 지원사업을 처음 시도했고, 6·25전쟁 70주년과 연계해 국가유공자 대상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해 의미를 더했다.

미래세대 자립지원 사업 중 하나인 '1%나눔 아트스쿨'은 포항과 광양 지역아동센

터에서 아동들이 문학기부 무용, 미술, 음악까지 다양한 예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79개 기관이 함께해, 총 1,072명의 아동들이 1%나눔 아트스쿨에 참여했다.

'상상이상 사이언스'는 포항과 광양 지역의 중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창의개발 수업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개 학교의 총 1,640명 학생들이 상상이상 사이언스를 거처했다.

'진천부자'는 다문화, 이주배경, 배려계층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아이들의 개인별 특기와 진로에 맞춘 교육비를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1대1 멘토링, 진로캠프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재단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이다. 전국에서 전상·공상으로 상이를 입은 26명의 국가유공자들을 선발해 첨단보조기구를 활용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신체 일부와 같은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나눔' 사업도 진행했다. 총 36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특수화대기, 시각장애인용 노트북, 안구마우스, 휠체어, 의수·의족 등을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일상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포함 441명, 광양 249명의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포스코1%나눔재단과 함께했다.

임직원들 매달 임금 1% 기부·회사가 매칭 '포스코1%나눔재단' 출범 9년째

미래세대·장애인·소외계층 지원 외에도 상이 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등 추가 재단 운영에 기부자 참여하고 투명 운영을 위해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 발굴기



상상이상 사이언스 교실·예 참가한 학생이 3D 모델링으로 제작된 장애인 보조기구 시도를 달달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부모 작가가 그림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1%나눔재단의 주요 사업 집행 결과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과 함께 작년 처음으로 시작된 '만남이 예술이 되다'는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만남이 예술이 되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동등하고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협업을 통해 서로의 예술적 수준을 고양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예술적 우수함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포스코 고유의 연발적 나눔 이벤트는 계속됐다. 지난해 연말에는 언택트 상황에 맞게 개편해,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을 활용한 온택트(Onact) 나눔 방식의 '1%마라톤'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1%마라톤은 '나의 조그만 자선을 뜻하는' My Little Charity'의 슬로건으로, 포스코 1%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직접 원하는 기부처를 선택해 후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약 2만 6,000명의 포스코 및 포스코그룹사, 협력사 임직원들이 기부처 소거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직접 원하는 기부처와 기부금액을 선택해, 총 후원금 8억 4,000만원을

기부했다.

### 포스코1%나눔재단의 특별한

원래 포스코1% 나눔재단은 기금모금, 사업진행 그리고 사후 관리 측면에서 여러 공익재단과는 구분되는 특별함을 갖고 있다. 첫째, 회사가 임직원 기부금에 매칭 출연한다. 둘째, 기부자 임직원들이 사업 개발에 참여한다. Change My Town 프로젝트, 1%마라톤 같이 기부자들이 재단 사업 구성과 활동에 직접 참여해 기부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셋째, 사업 선정·진행·사후관리가 투명하다. 기부금의 사용처와 용도가 분기별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넷째, 가성비 최고의 나눔활동을 한다. 포스코1%나눔재단의 운영은 포스코 기업시민십에서 담당해 거의 모든 기부금을 사업 추진에 사용한다.

2021년에도 포스코1%나눔재단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포스코에 걸맞게 친환경적인 공헌사업을 새로 발굴하여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그룹사 및 정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사업영역에서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히 지원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1%의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 작년에 기부금 106억... 미래 세대·다문화 청소년 위한 밑거름 됐다

## 포스코

2013년에 설립된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와 그룹사·협력사 임직원의 기부 참여와 회사의 매칭 출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이다.

지난해 포스코1%나눔재단이 모은 기부금은 회사의 매칭 금액을 포함해 약 106억7000만원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20년 한 해 동안 중점 사업 영역인 미래 세대, 다문화, 장애인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해 유튜브를 활용한 장애예술인 대중화 지원 사업을 펼쳤다. 아울러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게 첨단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등 사회 곳곳에 포스코 그룹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전했다.

미래 세대 지원 사업 중 하나인 '1%나눔 아트스쿨'은 포항과 광양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문학부터 무용, 미술, 음악까지 다양한 예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79곳의 기관이 함께해 총 1072명이 1%나눔 아트스쿨에 참여했다.

'상상이상 사이언스'는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부족한 포항과 광양 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창의개발 프로젝트다.

2020년에는 10개 학교의 총 1640명의 학생들이 상상이상 사이언스를 통해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 '두드림'은 매년 자립 준비 없이 복지시설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포스코가 보유한 취업 지도와 우수인 연계를 연계해 아이들이 직업을 갖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35명의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두드림을 통해 자립의 힘을 얻었다.

다문화, 배려 계층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지원 사업 '친친무지개'는 아이들의 개인별 특기와 진로에 맞춰 교육비를 지원하고 1:1멘토링, 진로캠프 등의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지난해 115명의 아이들이 친친무지개와 함께했다. 한 학생은 "고3이 되어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지만 친친무지개 덕분에 학원도 꾸준히 다니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다졌다"고 말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전국 26명의 국가유공자를 선발해 전상·공상으로 상이한 임은 국가유공자들이 첨단보조기구를 활용해 자립·지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로봇 의수를 전달받은 나형운씨는 "두 팔로 아이를 안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

함께 응원해 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신체와 일부와 같은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날개' 사업도 진행했다. 총 36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특수확대기, 시각장애인용 노트북, 의수·의족, 휠체어, 안구마우스 등을 지원했다. 또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일상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장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육상, 골프, 게이트볼, 역도, 볼링, 배드민턴 등 종목별로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해 포함 441명, 광양 249명의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포스코1%나눔재단과 함께 했다.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과 함께 지난해 처음 시작된 '만남이 예술이 되다'라는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하고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협업을 통해 서로의 예술적 수준을 고양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총 10팀의 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가치를 대중화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는데, 영상 누적 조회수는 710만에 달했고, 2만341건의 댓글이 달렸다.



상상이상 사이언스 교실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3D 모델링으로 제작된 항공 프로세스 지도 위에서 운영할 전기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포스코의 연말 작은 나눔은 계속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상황에 맞게 '1%마리제'를 내버려 해피비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온택트(Onact) 나눔으로 진행했다. '1%마리제'는 '나의 조그만 자선'을 뜻하는 'My Little Charity'의 줄임말로, 약 2만6000명의 임직원들은 기부

부처에 대한 소개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직접 원하는 기부처와 기부금액을 선택해 총 후원금 8억4000만원을 기부했다.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A32면 people

### KT&G '예체능 특기자' 장학생 선발



KT&G장학재단(이사장 백복인·사진)은 예체능 전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1 예체능 특기자장학생'을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은 뒤 재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 40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KT&G장학재단은 예체능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했다. 지금까지 약 50명의 장학생에게 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 매일경제

2021년 6월 2일 수요일 A35면 문화

# 문화로 인사하고... 세금 아끼세요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가 1일 문화접대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슬기로운 문화접대' 사업을 시작한다. 메세나협회가 2019년부터 매해 실시하고 있는 '슬기로운 문화접대' 사업은 문화접대를 실시하는 기업에 접대비의 50% (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협회가 지원하는 기업 문화접대에는 문화예술 공연, 전시 관람, 예술단체 초

### 메세나協, 문화접대 신청 접수

올해부터는 대기업이더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부여하는 문화예술후원인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일반 접대비 한도가 초과됐더라도 문화접대비로 추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늘 접대비

가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로서는 추가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까지 문화접대비로 인정된다.

메세나협회의 '슬기로운 문화접대' 사업은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www.mecenat.or.kr) 내 참가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수현 기자



# 철강산업 'ESG 경영' 선도기업 자리매김

## 포스코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펴낸 '2020 기업시민보고서'에서 "다가오는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로 ESG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체질화를 넘어 새로운 기업 경영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속해서 혁신해 철강 산업의 ESG 경영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시민보고서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당면과제와 대응 전략, 기업시민 경영성과 등을 담았다.

포스코는 지난해에 이어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권고안,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등 ESG 관련 국제표준의 정보 공개 권고사항을 검토해 이를 보고서에 반영했다.

국내 철강사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까지 아우르는 ESG 데이터(온실가스 배출, 사업장 안전 보건 등)도 SASB 기준에 맞춰 공개했다. 이처럼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발전을 위해 공존·공생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문화 예술 분야의 꿈을 키워주는 '1% 나눔 아트스쿨',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드림' 프로그램, 지역 학교에 찾아가 과학에 대한 흥미를



포스코가 운영 중인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포스코 재공

높여주는 체험형 창의개발 특강 '상상 상 사이언스'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또 '청년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을 자체 운영해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 광양 주택단지 내 포스코 임직원 자녀

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2개소를 각각 운영해왔으나,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현을 위해 지난해 4월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MOU를 체결하고, 포스코는 물론 그룹사, 협력사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건립했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에 회사별로 참여가 가능한데, 포항 지역은 그룹사 12개사, 협력사(중소기

업) 47개사, 광양지역은 그룹사 11개사, 협력사(중소기업) 51개사가 신청했다. 특히 전체 정원 중 협력사의 자녀 비중을 50% 이상으로 구성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구축의 모범 사례로도 꼽힌다.

한편 포스코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기존 어린이집 외에도 서울 포스코센터에 협력사와 건물 내 입주사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제2 어린이집을 새롭게 단장했다.

# 디지털 앨범 낸 복지시설 청소년들 CJ문화재단 '음악 통한 나눔 하모니'

'나사로 청소년집' 학생들 참여 지원 뮤지션·청소년 음악 교류

"나노래할래 이젠 두렵지 않아 길가에 핀 민들레처럼. 나 웃어볼래 이젠 겁내지 않아 어둔 하늘 반짝이는 별처럼."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과 좌절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내용을 담은 뜻 깊은 디지털 싱글 앨범인 '17'이 발매됐다. 아동복지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청소년들로 구성된 팝 밴드 레인보우의 데뷔앨범이다. CJ문화재단 튜업음악교실에서 기획한 이 앨범은 레인보우 멤버들이 보컬로 참여하고 이들을 지도한 외부 전문 강사와 선생님이 작곡, 작사, 연주를 하며 함께 만든 프로젝트 앨범이다. CJ문화재단은 지원 뮤지션과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서로 교류하는 튜업음악교실을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째 이

어오고 있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과는 2017년부터 인연을 맺어 왔다.

'17' 음원 발매는 CJ문화재단의 버클리대 지원 장학생 출신으로 현재 대학강사 및 전문 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강완(45·기타), 백인철(35·베이스), 김효영(39·피아노)씨 등 3명의 강사들이 기획부터 제작, 작곡, 연주를 맡았다. 가사는 '나사로 청소년의 집' 선생님인 권보미씨가 썼고 레인보우 소속 학생들이 보컬로 참여했다.

김강완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학생들 교육 4년 차를 맞아 저희 아이들도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음원을 한번 내보는 건 어떨까라고 동료 강사들과 나사로 선생님들에게 제안했다"며 "CJ문화재단의 도움으로 5개월여 만에 음원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강완·김효영·백인철(왼쪽부터)씨가 최근 CJ문화재단 튜업음악교실에서 기획한 앨범을 발매한 후 기념공연을 펼치고 있다.

어려움도 있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객원 밴드 멤버들의 음악교육이 쉽지 않았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실기 체크를 하며 음반 제작을 마칠 수 있었다. 백인철씨는 "힘들게 음악 공부를 할 때 받았던 도움을 음악인으로 성장한 후 누군가에게 다시 나눠줄 수 있다는 점이 행복했다"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음악 활동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교육 현장에서 매 순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CJ문화재단 튜업음악교실 같은 음악을 통한 나눔의 선순환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했다. 임혜선 기자 lhrs@

## 한겨레

### 서울문화재단 후원 전시 & 공연

#### 좌충우돌 여행 경험 되새기며 여행자 내면 찾는 연극 '클럽 베를린'

클럽 베를린(6월26일~7월18일) 여행은 낯선 것과 만남의 연속이다.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떠나다 허탈하고 결국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처음 가보는 곳에서 맞닥뜨린 파충우물 상한 속 여행자의 내면에는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른다.

여행만이 줄 수 있는 생경한 감정을 느끼게 해줄 연극이 찾아온다. 6월26일부터 7월18일까지 씨씨씨(CJ)아트 대학로에서 연극 **클럽 베를린**의 막이 오른다. 씨씨씨문화재단의 스테이지업 공간지원사에서 8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선정된 작품이다. 2019년 한양대학교의 극장에서 **클럽 베를린**이라는 이름의 낭독극으로 첫선을 보였다. 사진과 영상기록 등 여러 가지 불거리를 추가해 다시 관객을 만난다.

**클럽 베를린**은 여행 연극만 제작해 온 극단 **플레이어드**의 단원들이 2018년 실재로 다니는 유럽 여행을 무대화했다. 작가 겸 배우인 박동욱과 배우 전석호는 장작의 영감을 얻기 위해 독일 베를린을 시작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 열흘 정도 갈



이 머물던 전석호는 촬영 스케줄로 인해 서울로 돌아오고, 박동욱만의 여행이 이어진다. 유럽은 즐거운 공간이었지만 원하던 영감은 떠오르지 않는다. 체코 프라하, 폴란드 크라쿠프를 거쳐 다시 독일로 돌아온 박동욱은 길을 잃었음을 깨닫는다.

배우들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베를린 여행**이 총총하게 펼쳐진다. 다뤄낸 터라적 요소를 바탕으로 입담으로만 관객을 웃기는 코미디 장르인 스탠드업 코미디 양식을 도입해 등장인물의 성격과 서사가 돋보인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등장인물들은 자신도 몰랐던 자

신의 모습과 마주한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기록은 무대 위에서 관객의 눈앞에 재현된다. 출연진은 여행하면서 마주하는 낯선 일상 속 다양한 감정을 담백한 어조로 풀어낸다.

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에게도 자신이 경험했던 여행의 기억과 여행지에서 느꼈던 감정을 돌아보게 한다. 단순한 이 동 기록을 넘어 개인의 경험을 다수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새로운 감정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서사 방식은 여행 해피로더를 선보인 극단 플레이어드만의 특징이다.

다섯 번째 여행 연극을 만든 박신희 연출은 '여행을 기록하는 작업은 여전히 어렵지만 지나버린 시간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도구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수는 없었지만 관객도 우리의 함께 그 시간을 즐기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소: 종로구 동숭동 씨씨씨(CJ)아트 대학로 시간: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6시, 일 오후 4시 관람료: 1만원 문화: 02-322-3658 후원: 서울문화재단 후원(아티스트)

<p><b>산초</b> 24~25일</p> <p>국립무용단이 선 한해 해외무용극에서 선수를 선보였다. 다양한 장르의 가락이 모이고 흩어지는 전통 가락에서 산초의 미학을 선보인다. 지름 6m 30cm의 대형 바위, 황동 발라드 이드도 장치 등을 활용해 무대를 화려하게 꾸민다.</p> <p>장소: 종로구 동숭동2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시간: 화~금 오후 7시30분, 토 오후 3시 관람료: 화~목 문화: 02-2280-4314</p>	<p><b>모든물 애오개본산대놀이</b> 30일</p> <p>300여 년 역사를 가진 본산대 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달을 쓴 제비의 소리는, 향연, 풍류, 무용, 민중의 4종 음악이 어우러져 선보이는 신화-는 탈춤이다. 국악, 대중음악, 클래식, 세션 등 장르를 초월한 공연이 펼쳐진다.</p> <p>장소: 내곡리 태고비(TV), 유튜브 아프리카채널 채널 시간: 오후 7시30분 관람료: 무료 문화: 02-3274-8900</p>
<p><b>사랑 II LEBE II</b> ~7월18일</p> <p>베를린연극계 최극부에서 수 많은 작가 겸 연출가 박동욱의 작품이다. 유럽에서 나온 자아 탐구의 내성으로 아닌 고인의 사신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를 무대에 담아냈다. 이수도 저수도 아닌 공간에서 아미들을 꿈꾸는 내영의 이야기다.</p> <p>장소: 용산구 서계동 국립극단 백성대안극장 시간: 평일(화~목) 오후 7시30분, 토 일 오후 3시 관람료: 3만원 문화: 1644-2003</p>	<p><b>도시의 불빛 저녁</b> ~8월15일</p> <p>도시적 삶의 단면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 맺는 여러 관계를 살펴보는 전시다. 기술의 발전과 자본주의를 토대로 형성된 현대 도시의 물질적 풍요성과 권위주의 체제를 탐구하는 동시에 사회·환경 문제를 낳는, 전시는 주변화된 존재들에 집</p> <p>중외의 연극과 공연의 02를 소개한다. 장소: 종로구 사간동 경호미술관 시간: 화~일 오전 10시~오후 6시 관람료: 9천원 문화: 02-720-0184</p>



### ‘코로나19 여파’ 기업 문화예술 지원 총액 15% 감소

2020년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778억4900만원이며 지원 기업수는 390개사, 지원 건수는 9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지원 총액은 14.6%(302억9500만 원) 감소했으며, 지원 기업수와 지원 건수도 각각 28.7%, 33.4% 큰 폭으로 감소한 수 있다.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는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695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2017년부터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2020년부터 확산

된 코로나19의 여파로 분석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개별기업 부문에서는 KT&, 기업 출연 재단 부문에서는 ‘삼성미술관 리움’, ‘호암미술관’ 운영과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이 가장 지원 규모가 컸다.

조용직 기자

### 코로나가 원망스러운 문화계...기업 지원도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속에서도 개별 기업 부문에서는 KT&G, 기업 출연 재단 부문에서는 삼성문화재단이 지원 1위에 올랐다.

한국메세나협회가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695개 사를 대상으로 ‘2020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원 규모가 1,778억 4,900만 원을 기록, 전년(302억 9,500만 원) 대비 14.6% 감소한 것으로 나타

작년 메세나 지원 15%↓, 1,778억 KT&G·삼성문화재단이 1위 차지 ‘세액공제 등 활성화 정책 도입을’

났다. 지원 기업 수(390개 사)와 지원 건수(953건) 역시 전년 대비 각각 28.7%, 33.4% 줄었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하던 지원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크게 위축됐다. 협회는 “관객과 대면하며 현장에서 소통해온 문화

예술계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침체하면서 줄어든 문화예술 활동만큼 기업의 지원도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지원 규모로는 개별기업 부문에서 KT&G가, 기업 출연 재단 부문에서 삼성문화재단이 1위를 차지했다.

KT&G는 대표 문화 플랫폼 ‘KT&G 상상마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문화 클래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존 서울, 논산, 춘천 지역 외에 ‘KT&G 상상마당 부산’을 신

규 설립했다. 삼성문화재단은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 등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현 상황을 감안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및 문화예술 교육훈련비의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기업 문화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 코로나에 메세나 ‘꽂꽂’ 문화예술지원 15% 줄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메세나협회가 발표한 ‘2020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1778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문화예술 지원 건수는 953건으로 같은 기간 33.4% 줄었다. 메세나협회는 매년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및 기업 출연 문화재단 195곳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였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분석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연예술 분야가 크게 위축됐고, 줄어든 문화예술 활동만큼 기업 지원도 감소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내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공연·전시 취소가 잇따랐던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갤러리에 대한 기업 지원 금액은 1033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줄었다.

이밖에 영상·미디어(-3.2%), 연극(-13.9%), 뮤지컬(-44.6%), 비주류·다원예술(-49.8%), 무용(-50.1%) 분야 지원 규모도 감소했다

기업 중에선 KT&G의 지원 규모가 가장 컸다. KT&G는 대표 문화 플랫폼 ‘KT&G 상상마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문화 클래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KT&G 상상마당 부산’을 신규 설립했다. 기업 출연 재단 중에선 리움미술관, 호암미술관을 운영하는 삼성문화재단이 1위를 차지했다. 오수현 기자

### “공연 후원금 반토막”...기업들 메세나 활동 위축

참여기업 28% 줄고 지원 급감 작년 문화예술 총 지원금 1778억 14.6% 감소 - “정부 직접 나서야”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메세나(문화예술 지원)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해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금이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고 21일 발표했다.

2020년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금 총액은 약 1778억원으로 전년(2081억원)보다 14.6%(약 303억원) 감소했다. 지원에 참여한 기업 수는 전년보다 28.7% 감소했고, 지원 건수도 33.4% 줄었다. 협회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국내 500대 기업(매출액 기준)과 695개 기업 산하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코로나19로 공연 및 전시 횟수가 줄어들어 지원금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 관계자는 “관객을 마주하며 현장에서 소통을 이어온 문화예술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침체되자 기업의 지원도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연예술 지원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무용 공연 지원금은 전년 대비 50% 줄었다. 클래식(42%), 뮤지컬(44%)도 절반 가까이 지원금이 급감했다. 전체 지원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장 및 전시관 설비투자 지원금도 2019년 1139억원에서 지난해 1032억원으로 약 100억원 쪼그라들었다.

후원 주체를 보면 개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금 총액이 지난해 820억원으로 전년(약 1084억원)에 비해 264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기업 산하 문화재단들은 문화

예술 지원에 957억원의 예산을 썼다. 2019년에 비해 39억원 감소했다.

기업 문화재단 중에선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을 운영하는 삼성문화재단이 지원금 총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고, 롯데문화재단(2위)과 LG연암재단(3위)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금융·보험사 및 유통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예술 지원 사업을 대거 취소했다.

메세나협회 관계자는 “문화예술 지원을 장려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문화예술 기부금 및 교육훈련비 세액 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우 기자



매일경제

2021년 7월 19일 월요일 A18면 기호

# 커피 한잔값 ‘미니보험’으로 빅테크 공세 차단

송영록 메트라이프 대표

“보험사의 가장 큰 자산은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입니다. 제가 대표 취임 후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전속 채널 설계사의 양적·질적 성장이고, 코로나 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이들 설계사의 힘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메트라이프생명 보험 본사에서 만난 송영록 대표는 전속 설계사 이야기부터 꺼냈다. 생명보험업계는 현재 ‘제조(제조·판매)분리’ 바람이 거세다. 전속 설계사를 별도의 판매조직으로 떼어낸 뒤 기존 보험사는 상품 개발에만 올인하는 형태다. 생보 빅3로 통하는 한화생명이 올해 초 제관분리를 단행했고, 이에 앞서 미래셋생명도 제관분리를 완성했다.

송 대표는 “세무·부동산·투자·은퇴 관련 내용을 상담받은 뒤 맞춤형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법인과 고액자산가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 준비된 설계사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거액 상속세가 최근 화제가 되면서 상속세 마련을 위한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자산가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전속 설계사에 대한 지원은 통해 메트라이프는 올해 한국MDRT협회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과 2019년에 이어서 1위를 탈환한 것이다.

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100만달러 원탁회)는 1927년 미국 멤피스에서 시작된 보험·재무 설계 분야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7만2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MDRT 회원이 되려면 연간 6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벌거나 1억5300만원 이상의 보험료 실적을 달성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송 대표에게 메트라이프는 첫 직장이다.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메트라이프의 전신인 코오롱메트생명에 입사한 것이다. 하지만 2년 뒤 회사를 떠나 삼일·한영 등 여러 곳의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다 2007년 다시 메트라이프에 합류했다. 2018년 9월 메트라이프의 수장이 된 송 대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266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1371억원을 기록했다. 올



▶ 송 대표는… △1968년생 △1994년 서울대 수학과 졸업 △2005년 삼일회계법인 시니어매니저 △2007년 메트라이프 생명 상무부 △2015년 메트라이프생명 전무 △2016년 메트라이프생명 CFO △2018년 9월~ 메트라이프생명 대표

## 보험 관심적은 MZ세대 겨냥 월 5000원 ‘미니 보험’ 준비

코로나로 자산가치 급등하자 상속세 마련 등 보험문의 늘어 전속설계사 적극 지원한 덕에 변액보험 판매 사상 최고 전방

## 문학 분야도 메세나 지원 확대

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680%나 급증한 709억원을 기록 중이다. 효자상품은 변액보험이다. 매년 1000억원 수준이던 변액보험 초회 보험료가 지난해 주시시장 활황을 타고 2246억원까지 치솟은 것이다. 올해는 1분기에만 이미 1328억원을 넘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송 대표는 “2003년 업계 최초로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출시해 변액보험의 저변을 넓혀왔다”며 “최근 인공지능(AI) 이 가입자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 고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해 국내 시장을 떠난 미국 푸르덴셜생명과 이에 앞서 철수한 네덜란드 ING생명(현 신한라이프) 등은 한국 보험 시장의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한국 사업을 정리하고 성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시

장으로 발길을 돌린 상황이다. 반면 미국계인 메트라이프는 아직까지 한국 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송 대표는 “변액보험과 달리보험 등이 국내에서 인기를 얻으며 메트라이프 실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글로벌 메트라이프 차원에서 한국이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시장 철수 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시장 공세가 거세다. 카카오는 디지털 손보사인 카카오손해보험이 최근 예비인가를 받아 내년 초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다. 네이버 또한 네이버파인애플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보험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다. 송 대표는 “빅테크 공세에 대해 스타벅스보험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보험은 커피 한잔 가격에 가입할 수 있는 미니보험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메트라이프는 30세 남성 4800원, 여성은 2800원만 내면 1년간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해주는 ‘메트라이프MINI재해보험’을 출시했다. 월납 보험료로 따지면 남성은 400원, 여성은 233원뿐이다.

송 대표는 “미니보험은 본인이 직접 찾아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지인이 가입료를 문자로 보내 선물하는 형태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메트라이프는 올해 상반기에 미니재해보험 가입 1건당 1만원을 매칭 기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적립된 기부금은 메트라이프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후원단

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메트라이프가 계획하는 미니보험 2탄은 암보험이다. 암 중에서 폐나 간, 위 등 한 부분만 보장하는 대신 가격은 대폭 낮춘 상품이다. 송 대표는 “가족력 등을 보고 꼭 필요한 암보험에 대해 5000원가량 비용으로 보장받는 상품”이라며 “트렌드에 민감한 MZ세대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장기적으로 이들을 변액·종신·달리보험 고객으로 이어나가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메트라이프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메세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메트라이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단체를 후원한 데 이어 등단 작가의 생애 첫 출판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송 대표는 “한국메세나협회 자료를 살펴보니 기업의 문화 후원 중 문학 분야 비중이 1.8%로 가장 낮다”며 “이것이 문학 지원을 결정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가로 등단했지만 아직 책을 내지 못한 작가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생애 첫 책 지원 프로젝트”라고 덧붙였다.

그는 “첫 책 지원 사업은 작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게 목표”라며 “창작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출판 이후 인쇄와 저작권도 작가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계속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승훈·오수현 기자·사진/이충우 기자

헤럴드경제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021면 퍼플

# 한국메세나協-인천공항공사, ‘온아트스쿨’ 론칭

청소년 예술인재 양성 강사 모집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초·중·고생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사업 ‘온아트스쿨(On-Art School)’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예술강사를 모집한다.

온아트스쿨은 인천공항 인근 초·중·고교의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예술역량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문화예술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올 9~12월 총 59개 학급에서 1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지역학교 방과 후 교육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다. 모집공고 확인 및 참가신청은 한국메세나협회 공식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최종 합격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수업 시연 및 면접을 거쳐 8월 3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조용직 기자

한겨레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T05면 기획/특집

# 콘서트·신진 미술작가 후원...희망 주고 성장 돕는 나눔 실천

종근당

종근당이 지속가능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해 신약 개발은 물론 꾸준한 메세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종근당의 장기적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사회와 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전국 주요 병원에 있는 환자 와 가족들을 직접 찾아가는 ‘오페라 희망이 야기 콘서트(이하 희망 콘서트)’와 ‘키즈 오페라’ 공연은 의료보전 관계자들에게까지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병원 로비에서 진행되는 희망 콘서트에서는 유망 아리아와 영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 뮤지컬 등 친숙한 음악이 재미있는 해 설을 곁들여 들려주고 있다. 키즈 오페라에서 클래식, 힙합 등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부형에 지친 어린이들을 위로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희망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했지만 올해는 어린이날을 맞

이 5월과 2일 이틀에 걸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종근당 KIDS HOPERAH HOPE+OPERA’를 진행했다. 공연 첫날엔 의료·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가족, 한부모 가족을 초청했고 둘째 날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도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꾸준한 메세나 활동으로 문화예술 후원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종근당의 남다른 행보는 2022년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와 함께 계약업체 최초로 신진 미술작가를 지원하는 ‘종근당 예술지상’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국공립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비영리 창작 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은 만45살 미만 평면회화 작가 3명에게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개최한다. 지난 4월에 ‘종근당 예술지상 2021 올해의 작가’로 이재훈·이해민선·정지성 작가를 선발했다. 오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는 2019년 선정작가인 양유연·유현경·이재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제8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이 열린다. 종근당이 지역사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도 많다. 매일 전 임직원들이 업무시간을 할애해 본사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연구소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 생산공장이 있는 충남 천안 지역 내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본사를 비롯해 전국 5개 사업장에서 한일 캠페인을 전개해 한일증과 기부금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해피빈재단과 협력해 ‘가볼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종근당이 지난 5월~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종근당 KIDS HOPERAH HOPE+OPERA’를 진행해 관객에게 지친 어린이들과 가족,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종근당이 지난 5월~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종근당 KIDS HOPERAH HOPE+OPERA’를 진행해 관객에게 지친 어린이들과 가족,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올여름에도 '예술 꽃'은 피었습니다 메마른 문화계에 단비 돼 준 기업들

코로나 여파로 문화·예술 지원 15% 줄었지만  
이건희컬렉션 문화 콘서트 - 삼성현대차 등 지원 계속돼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는 기약 없이 머무르고 있다. 홀츠러든 기업의 메세나(mecenas: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도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금이 전년에 비해 14.6% 감소했다.

하지만 '겨울'이 영영히 지속될 수는 없는 법. 전체적인 후원 규모는 줄었지만 물라도 시민 결의로 더욱 바짝 다가간 유·무형의 다양한 메세나 활동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생전 수집했던 고미술품과 근현대 미술품 등 '이건희 컬렉션' 2만3000여 점이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돼 시민들이 직접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 대표적이다.

### 풍풍인 마음 녹이는 메세나

외형상 기업들의 문화·예술계 후원 활동은 아직 제대로 꽃 필 여간이 아닌 모습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금 총액은 약 1778억원으로 전년(2019년)보다 14.6%(약 303억원) 감소했다. 지원에 참여한 기업 수도 전년보다 28.7% 감소했다. 지원 건수 역시 33.4%나 줄었다.

'대만'이 핵심인 분야일수록 타격이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등으로 공연장과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등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면서 지원금액(1033억원)도 전년 대비 9.3%(106억원) 줄었다. 특히 클래식 음악 분야의 타격이 컸다. 전년 대비 지원 규모가 42.9%의 위약이나 급감한 것이다. 뮤지컬(-44.6%)과 무용(-50.1%) 분야의 타격도 적지 않았다.

여전히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이 꽃을 피우기엔 주변 상황이 엄혹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공연 및 전시 횟수가 줄어들면서 지원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립현대미술관 이견희컬렉션 특별전



롯데문화재단 '2021 오노 프로젝트'

(Tune up), 신인 뮤지컬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테이지업(Stage up)'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호아시아재단은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젊은 음악가들의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지속해서 열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007년 사재 8500억원을 들여 설립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예술 진흥을 통해 미래 인재에게 꿈을 심어주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 시민 걸음도 다가간 예술체험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접촉이 제한되고, 활동의 제약이 늘었지만,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문화·예술 활동이 늘고 있다.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도 눈에 띈다. 특히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거나 초청해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 두드러진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군 장병을 위한 비대면 방식의 문화예술체험 제공 행사인 '군인의 품격'을 진행했다. 증권당클럽스는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과 환자,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위한 오페라 공연 콘텐츠 제공 활동인 '증권당 오페라 희망 이야기'를 선보였다.

이런 영재 육성을 위한 지원 활동, 예술 관련 생활 교육도 꾸준히 있다. 금호타이어는 '나를 지켜줘' 이벤트를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예술과 접목해 학교에서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손해보험도 '워기탈출 안전교육'을 통해 무용을 활용한 융합 교육으로 아동들의 안전의식을 키웠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우리카드는 '꿈나무 아트클래스'를 통해 대학 중심의 미술교육으로 창의력을 키울 기회를 마련했다. KT&G복지재단은 지역아동센터 학생에게 음악, 미술이 융합된 다양한 장르의 예술 교육을 했다.

Getty Images Bank

## 전자신문

2021년 8월 13일 금요일 020면 전자



**GS칼텍스, 취업생 위한 '에너지 플러스 콘서트' 개최** GS칼텍스는 한국메세나협회와 진행하는 'GS칼텍스 취업동고동락' 5기 프로그램의 시작을 여는 '에너지 플러스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취업동고동락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취업생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 한겨레

2021년 8월 28일 목요일 92면 기획/특집

# 지속 가능한 경영 바탕으로 '사랑의 종' 울리다



1. 증권당은 전국 주요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오페라 희망 이야기 콘서트' 공연을 위한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증권당 KIDS HOPERA' 공연. 2. 지난해 한인에서 진행된 '행복을 꾸미다' 나눔 행사.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되는 한화 캠페인.

**증권당** 최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이 기업 활동의 키워드로 급부상하며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ESG 목표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ESG 경영을 위한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오페라 콘서트'와 188회의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며 오페라를 통한 문화예술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키즈 오페라는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는 물론이고 클래식,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자에서 감성하며 어린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 올해는 5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술극장에서 '증권당 KIDS HOPERA(HOPE+OPERA)' 공연을 진행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증권당의 남다른 열정은 2012년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와 함께 제작된 '키즈 오페라'를 지원하며 '증권당 예술지상'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최근 2년간 공공미술 제2인스 프로그램 및 비영리 창작 스튜디오의 지원을 받은 만 45살 미만 창작자와 작가 3명에게 장기 지원을 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개최한다.

증권당은 지역사회의 소중 전도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일 모든 임직원이 업무시간을 할애해 봉사 휴직을 진행한다. 오노 10월7일부터 10월18일에는 2019년 선정 작가인 양유연, 유현경, 이혜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8월의 증권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세종미술관 1관에서 개최한다.

증권당은 지역사회의 소중 전도사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일 모든 임직원이 업무시간을 할애해 봉사 휴직을 진행한다. 오노 10월7일부터 10월18일에는 2019년 선정 작가인 양유연, 유현경, 이혜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8월의 증권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세종미술관 1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4월에는 증권당 예술지상 2021 올해



### 메세나협-두산아트센터 '창작 워크숍 6기' 참가자 모집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와 (재)두산연강재단 두산아트센터(예술감독 강석란)가 오는 10월 14일까지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6기'는 성수연 배우, 윤성호 극작가, 이항하 국악창작자가 강사로 참여해 연기제작, 희곡, 음악-전통연희 총 3개의 워크숍이 각 8회씩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연강홀 무대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조용직 기자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험버 공연.



[사진 제공=메트라이프생명]

백산그룹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장기 임원 환아를 위해 마련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진 제공=백산엔지니어링]

## 지원 끊긴 장애인 오케스트라, 기업이 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5명으로 구성된 실내악단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험버'는 2010년 창단 후 서로 선율에 의지하며 혼연일체된 화음을 빚고 있었다. 그러나 동고동락 3년 후 이 단체가 소속된 사단법인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예체 통보를 받았다.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야 해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한겨울 오갈 데 없어진 단원들은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헤어지기 싫었다. 결국 실내악단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돈 한 푼 없는 자립은 '가시밭길'이었다. 주변 지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조금씩 도와 겨우 음악 활동을 지속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여러 대기업에 후원 요청을 해왔지만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음악 단체가 아니라서 곤란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험버' 공연장 대관료·무대 연출 등 메트라이프생명서 지원 활동**  
**백산, 난치병 아이들에 인형극 KT&G, 온라인 공연 제작 도와**  
**문예위도 메세나기업에 혜택**

다행히 2019년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이들의 손을 잡았다. 음악회 대관료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기, 악기를 나르는 스태프까지 지원했다. 그해 8월 서울 노원동 플랫볼룸에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배경음악을 연주할 때는 무대에 영화 장면 영상을 띄웠고, 12월에는 세종문화회관 무대

에도 설 수 있었다. 김마사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험버 대표는 "예전에는 무거운 피아노까지 단원들이 직접 날렸는데 메트라이프 생명이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황송한 마음으로 무대에 선다"고 감사를 표했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온라인 공연이 어렵게 되자 온라인 콘서트와 홍보 스토리북 제작비를 지원했다. 2019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맞춤형 문화 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The Gift(더 기프트)'를 통해 이 실내악단뿐만 아니라 청년 퓨전국악밴드 엑스(AUX) 음원 제작비와 저작권 등록을 도왔다. 메트라이프생명처럼 많은 기업이 고전하는 문화예술단체 '가방에 단비'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KT&G는

온라인에 가상현실(VR) 전시와 작가 소개, 공연 영상을 올려 예술가들과 대중이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2007년부터 서울 대치동, 충남 논산, 강원도 춘천, 서울 대치동, 부산 서면에 문화예술공간 '상상마당' 5곳을 개관해 비주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문화예술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백산엔지니어링, 백산퍼워, 백산엔터프라이즈는 2013년부터 임직원 월급 1%를 모은 기금으로 서울대 어린이병원 공물꽃씨심터에서 장기 임원 환아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선물하고 있다. 대략로 문화지구 예술인들과 함께 '어린이병원 힐링드라마(인형극)' '미술교실 꼬마화가' '배우가 읽어주는 사계절 동화' 등을 개최

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면이 어려워 동화책과 함께 책읽고 놀이할 수 있는 만들기 키트를 제작해 나눠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메세나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5년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인증기관(기업)에는 문화체육부 장관 명의 인증서, 출입국 우대 카드, KB 글리우대 혜택 및 임직원 자산관리 컨설팅(중소·중견기업), 문화예술 사업비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여기전화 기업 인증제'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가산점도 부여된다. 현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5곳,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기업) 50곳이 인증을 받았다. 전시현 기자

## 왜 이 작품인가요? ...컬렉터의 방을 엿보다



유용선(왼쪽)의 회화와 임지빈의 베어브리컬 설치작품을 볼 수 있는 '매니폴드:사용법' 전시 전경.



독서가 컬렉터가 선택한 것으로 설정된 윤상윤의 작품들. 그는 일부러 왼손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 전시 '매니폴드:사용법'

젊은 뮤지션인 그는 복잡하고 위선적인 세상에 대해 노래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대단히 밝고 낙천적이다. 성격은 미술품 수집에서도 드러난다. 그의 방에는 친숙한 만화·애니메이션 혹은 광고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유용선의 그림이 걸려 있다. "단순하지만 굵은 윤곽선이 강조하는 사물과 배경은 분명하면서 복합적인 그의 사고방식과 연관돼 있다고 느낀다. 색채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화면은 역동적이다. 나는 이런 그림이 좋다." 임지빈의 작품 소재인 베어브리컬은 그를 열광하게 만드는 존재다. "커다란 베어브리컬 인형은 커다랗게 부풀려져 있거나 혹은 사회 속에서 유독 소외감을 느낀 자아를 응시하는 것과도 같다. 한편으로는 베어브리컬 특유의 친숙함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림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를 분명한 언어와 문장으로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림 한 점 사고 싶는데 어떤 그림이 좋은지 몰라 망설여지는 이들을 위해 '왜 그 그림이

### 유용선 회화·임지빈 베어브리컬 등 97가지상의 컬렉터 시각으로 구성 좋은 그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좋은 그림인지' 설명해 주는 매뉴얼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매니폴드:사용법'이다.

전시는 취향이 다른 컬렉터 9명의 방으로 구성됐다. 비혼주의를 선언한 한 컬렉터는 과상원의 그림을 걸었는데 작품 속 인물의 "파란 모자가 지평선의 하늘과 겹쳐져 마치 유령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앞에 놓은 김윤수의 작품은 숫구치는 파도를 한 움큼 집어 놓은 모양으로 잘라 수백 장 포개 놓은 작품인데 "얇은 시간의 단면들을 쌓아올린 순수한 운동성이 깨달음을 시각화한 것 같기도" 해서 택했다.

미니멀리스트의 방에는 기하학적 완벽함과 빛·색으로 이뤄진 정정주의 작품, 하얀 점시 위에 놓인 빨간 사과가 강렬한 기호 같은 장문의 그림이 놓

였다. 회화 그 자체를 좋아하는 수집가의 방은 좀 더 화려하다. 붓질의 흔적과 전직한 굴림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안상훈, 전희경의 작품은 "낙서같기도 하고 신체의 일부만 같기도 한 선들이 화면을 뒤덮어" 때로는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신경을 자극하기도 한다. 문학을 사랑하는 어느 독서가는 익숙하지 않은 왼손으로 그리는 윤상윤, 버려진 합판 위에 그림을 그린 뒤 배경을 뜯거나 봉개는 박광선 등 불편함과 힘겨움을 추구하는 이들의 작품을 택했다. 문학 못지 않게 세상을 바라보는 색다름이 있기 때문이다.

전시 기획을 맡은 유진상 계열예대 교수는 기존에 없던 '컬렉터의 시각'으로 가상의 수집가를 설정해 이번 전시를 꾸렸다. 유 교수는 "미술품 소장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그 작품을 왜 좋아 하는가'라는 물음 앞에 멈칫거리는 컬렉터들을 위해 '왜 이 그림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적어 둔 매뉴얼 같은 전시"라고 설명했다. 실제 컬렉터의 방 같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 전시 공간에는 작품 안내판도 두지 않았다. 유 교수는

"장기적으로 이 같은 컬렉터 교육형 전시를 통해 그림을 왜 사서 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론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가 진행하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통해 선정된 7개의 우수 화랑과 그들의 19명 전속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은 작가와 화랑의 상생을 위해 예경이 갤러리 측에 일일액의 전속작가 창작활동비와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갤러리의 지원과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작가는 안정적으로 작업하고, 그 결과물인 작품을 관객이 감상하고 소장하는 미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나아가 기업들은 공공기금이 싹 틔운 작가들을 더 키워낸다. 한국메세나 협회와 협력한 '메세나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메트라이프생명, 백산엔지니어링, CJ문화재단 등이 각각 작가를 선정해 3년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사진=조상인 미술전문기자



### 매일경제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A33면 사람과사람

## 부산메세나협회 출범 백정호 초대 회장 추대



부산의 기업과 예술 단체 간 다리 역할을 할 부산메세나협회가 출범했다. 부산메세나협회는 지난 13일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메세나협회는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의 상생 발전을 위해 설립된 문화예술 후원기관이다. 초대 회장에는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사진)이 추대됐다. 백 회장은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KBS교향악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진흥과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2018년 한국메세나대회에서 메세나인상을 받는 등 지역의 예술 후원자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박동민 기자

## 전세계를 홀린 K아트... 그 뒤엔 메세나 있었다



올해도 낭보 쏟아진 순수예술계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 부산시 박재홍·김도현 나란히 1·2위에 파리오페라발레단 활약 박세은 아시아인 최초 수석무용수 올라 팬데믹에 다소 움츠러든 메세나 기업 후원 끌어낼 정책지원 절실



세계 최정상 발레단인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에서 활약 중인 발레리나 박세은이 지난 10년 만에 수석무용수(에투알)에 올랐다.

피아니스트 박재홍(22)과 김도현(27)은 올해 9월 이탈리아 볼치노에서 열린 세계적 권위의 부산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알프레트 브렌델, 마르타 아르헤리치, 개릭 울슨 등 거장 피아니스트들을 배출한 이 콩쿠르는 올해 63회에 이르기까지 절반 가까이(총 31회) 우승자를 배출하지 않고 '1위 없는 2위'를 발표했다. 그만큼 강한 대회다. 그런 대회에서 한국인 피아니스트들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것은 한국 피아니즘이 클래식 본고장 유럽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입증한 사례였다.

발레계에서도 낭보가 들려왔다. 세계 최정상 발레단인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BOP)에서 활약 중인 발레리나 박세은(32)이 지난 10년 만에 수석무용수(에투알)에 오른 것. 1699년 설립된 파리오페라발레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레 단체로, 352년 역사에서 아시아인이 에투알에 오른 것은 박세은이 처음이다. 에투알은 프랑스어로 발을 의미한다. 박세은은 말 그대로 세계 발레계의 '발'이 된 것이다.

순수예술 분야에서 한국인 예술가들의 약진은 이제 눈앞에 보인다. 2015년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인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같은 해 또 다른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는 임지영(바이올린)이 우승했다. 2017년에는 북미 최고 피아노 경연대회로 꼽히는 미국 맨 클리어먼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전우예권이 우승했다. 한국 예술가들의 뛰어난 실력에 반기에 따를 듯 앞서는 "한국 예술 교육의 비결이 궁금하다"며 2019년 방한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찾기도 했다. 별기에는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로 꼽히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를 개최하는 나라다. 서양 음악의 중심지에서 오히려 한국 음악의 비말을 공급해오는 상황은 세계 예술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이제 한국 예술 수준을 더 이상 세계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며 "전 세계가 이미 한국 예술가들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 예술가들의 활약이 계속된 것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메세나 지원이 한국 예술계에 자양분으로 작용한 결과다. 메세나(Mecenat)란 고대 로마제국 정치가 루분토 보호에 크게 공헌한 마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활동이나 지원자"란 의미의 프랑스어로 계승돼 널리 쓰이고 있다. 오늘날 메세나 활동은 국내 기업의 중요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탓에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메세나협회 실시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한 1778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앞서 2017년부터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를 강타하면서 줄어든 문화예술 활동만큼 기업의 지원도 감소하게 된 것이다. 지원 기업 수는 전년 대비 28.7% 감소한 380개사, 지원 건수도 같은 기간 33.4% 줄어든 933건에 그쳤다.

실제 순수예술 분야 중 전통적으로 가장 지원 규모가 큰 클래식 분야의 경우 지난해 상당수 공연이 잇따라 취소된 여파로 지원액이 전년 대비 42.9%나 줄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과 기업 출연 문화재단 등 665개사(응답률 39.6%)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예술 후원을 이끌어낼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및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기업 문화재단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 완화 등 기업 자금을 문화계로 유입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중권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독려할 법 개정이나 지원금 예산 배정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의 메세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과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1 한국메세나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문화공헌상은 KT&G 장학재단, 창의성은 한화손해보험에 돌아간다. 이왕준 명지대학교 이사장에게는 메세나인상이 수여된다. 삼성SD와 하트브레드재단은 아트비즈니스상을 수상한다. 오수환 기자

매일경제신문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선정하는 '한국메세나대상'은 1999년부터 국내 기업 중 문화예술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기업 문화재단에 대한 주식출연 규제 완화 등 기업 자금을 문화계로 유입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중권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독려할 법 개정이나 지원금 예산 배정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향 심사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예술계와 동행하는 메세나 활동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며 "무엇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문화예술 지원의 끈을 놓지 않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 '무용'으로 위기탈출 교육... 안전·예술 지원 둘 다 잡았다

## 창의상 / 한화손해보험

무용 접목한 위기대응 교육  
7년간 6억5000만원 지원  
임직원 2200명 적극 참여  
코로나엔 비대면으로 진행

한화손해보험은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교육에 무용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안해 7년째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무용을 전공하고 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예술강사들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 교육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무용 기반 안전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들과 만났다.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직무 연수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이 같은 창의적 지원 방식은 본래 목적인 안전 교육 강화는 물론 예술강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지원 금액은 연평균 9000만원. 총 누적금액은 6억5000만원이다. 한화손보는 급전적 지원 외에 임직원 220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등 인적 자원 봉사도 함께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과 임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한화손보라는 브랜드 이미지 강화하는 기업 가치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평했다. 임직원들이 느끼는 보람과 힐링, 봉사활동 참여 증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과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안전사고'가 줄어 들면 회사에 좋으니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교육"이라고 손꼽는 사업이라며 "아동·청소년 안전 교육에 참여하면서 자녀와 조카 등 어린 세대와의 소통·공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동료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창의적 발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예술을 접목하고 있다. 보충본연의 값을 살리면서 예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화손보 직원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사회공헌에 동참하고 있다.

협력기관 사회복지사들에 따르면 특히 아동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 없는 위기 상황별 대처법을 무용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아동들이 안전 교육에 집중하기가 힘든데 무용 덕분에 집중력과 자발성, 몰입도와 만족도가 뛰어나다"며 "자원봉사자로서 직원분들이 '안전지식 알리기' 등 보조교사 역할을 하면서 수업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무용계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안전교육에 무용이라는 장르를 활용한 것이 매우 신선하고 교육 효과도 높아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사업 예산 75% 이상이 교재 개발과 재

작비, 강사비로 책정돼 예술단체의 활동과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했다. 이 사업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시작했다. 항공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승무원들이 실전 훈련을 하는 것처럼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접 몸으로 체득하는 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즐거게 배울 수면서 안전 노하우를 몸으로 체득하려면 어떤 장르가 적합할지 심층 논의의 끝에 무용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위험한 상황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가 적합하다고 보고"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양한 교보재를 활용해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 탈출

안전 교육은 아이들과 안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교류·소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한화손보의 사회공헌에는 '예술'이 빠지지 않는다. 보충본연의 특성에 맞춘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여의도공원에서 '안전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단순한 안전 체험 기회만 제공하던 것을 넘어 2018년과 2019년에는 '교보안전 체험존'에 무대를 만들었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테마 뮤지컬 '우리기소방대'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초·중·고·대학생 안전준비 캠페인 킷오 캠페인도 예술 활동을 접목해 문화와 함께하는 기업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신천욱 기자

# 폐관 위기 소극장 살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문화교육

한화손해보험이 지금까지 매세나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28억원이 넘는다. 세심극장 임대료 후원은 그 상징과도 같다. 세심극장은 1999년 국제문화기금(IMF) 구제금융 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화손보 전신인 제일화재손해보험(2010년 한화손보 합병)은 당시 창업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세심극장의 연간 임대료 1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그 덕분에 폐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세심극장은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 극장경영에 기업명을 결합한 '네이밍 스폰' 형태로 극장을 운영했

다. 이는 매세나의 의미를 새겨준 정의의 대표작인 '인연 사레'로 화자였다. 2010년 제일화재가 한화손해보험에 인수 통합된 이후에도 한화손보보험은 극장 임대료를 2년간 더 후원하며 예술 지원에 앞장섰다.

"문화예술터하기" 사업도 있다. 2009년부터 운영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분사와 전극 네트워크 사업장 임직원이 지역 내 결연한 아동센터와 복지시설 어린이와 함께한다. 13년간 이어온 이 행사는 문화예술 교육과 재능 나눔, 청소년 창의예술 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 플랫폼도 문제해

소하고 전통문화 예술 전파에도 크게 기여했다. 2018년과 2019년 연회 금융 5개사의 새 브랜드 '라이프플러스'를 알리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옥외 콘서트를 열었다. 봄·가을에 'LIFEPLUS 스티치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2030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공

연을 선보였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사육 앞에 무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을 초청해 바쁜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유언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문화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천욱 기자

## 매세나인상/이왕준 명지료재단 이사장

# "예술로 병도 이겨낼 수 있죠"... 병원내 꾸준히 '치유 음악회'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창의성과 혁신의 원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예술을 통한 정서의 치유로 질병 회복에 도움을 받는 것을 보면서 예술과 기업 만남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

다. 이왕준 명지료재단 이사장은 최근 문화예술 단체 지원 등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매세나대상'에서 '매세나인상'을 수상한 데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 이사장의 본업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감염병 전문가다. 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을 비롯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방역활동-기기분과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가' 위촉' 등을 맡고 있다. 2009년 신종플루 상임실장. 2015년 메르스 대책위원 겸으로 활동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명지병원에는 5명의 메르스 환자를 단 한 명의 원내 감염 없이 전원 완치시켜 국내에서 가장 대응을 잘한 병원으로 평가받았다.

이 이사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눈코 뜰 새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감염병 전문가이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 문화 예술에 헌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매세나 음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장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영연방을 맡고 있다. 예술의전당 후원회장을 비롯해 양정빌 단체인 세종문화예술회와 조이오브스트림스 이사도 맡고 있다. 최근까지 국립합창단 이사장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성정문화재단 대



이왕준 명지료재단 이사장.

국악방송과 함께 연 '뉴힐하우스콘서트-명창명연결 시리즈(2017-2019)'는 의료계를 넘어 문화예술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안숙선, 신현희, 최정호, 이경진, 문재수, 김은영 등 당대 최고의 인건문화예술인들이 명창명연 시리즈에 초청돼 콘서트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강타한 지난 해에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코로나19 특별 음악회'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간호사, 자가격리 중인 병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영상, 간식사, 직원들에게 참여해 영상 촬영을 제작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



명지료재단은 환우와 의료진을 위한 공연을 수시로 열고 있다. 사진은 2018년 5월 한계 영상 '조이오브스트림스'와 함께한 힐링콘서트 후 연주자들과 오를을 위한 이왕준 이사장(오른쪽 다섯째).

도입했다. 이 이사장은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는 데 대해 "예술이 단순한 의료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 수단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환우가 어려운 바깥에 단 연수 실력으로 직접 연달아 병의 선진, 순환음악회 때 무대에 함께 등장하기도 한다. 암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예술의전당에서 연 '힐링콘서트'도 정기 출연에 위촉의 선물을 들러줬다. 그는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꾸준히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응원하겠다"며 "기업과 예술이 함께 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나라 문화 융성에 기여하는 하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도	구분	수상시 대상	대상
제1회 2010년	문화공헌상	KT&G	대상
	매세나인상	정승호-재일대NS 회장	대상
제11회 2011년	문화공헌상	한국전력	대상
	매세나인상	SK이노베이션	대상
제12회 2011년	문화공헌상	KT	대상
	매세나인상	김희근-비엔나	대상
제13회 2012년	문화공헌상	삼성SDI	대상
	매세나인상	이창호-삼성SDI	대상
제14회 2013년	문화공헌상	삼성SDI	대상
	매세나인상	김경호-삼성SDI	대상
제15회 2014년	문화공헌상	KT	대상
	매세나인상	박성우-이천산업	대상
제16회 2015년	문화공헌상	KT&G	대상
	매세나인상	김정수-LS&F	대상
제17회 2016년	문화공헌상	삼성SDI	대상
	매세나인상	김영호-삼성SDI	대상
제18회 2017년	문화공헌상	삼성SDI	대상
	매세나인상	김영호-삼성SDI	대상
제19회 2018년	문화공헌상	삼성SDI	대상
	매세나인상	김영호-삼성SDI	대상
제20회 2019년	문화공헌상	삼성SDI	대상
	매세나인상	김영호-삼성SDI	대상
제21회 2020년	문화공헌상	삼성SDI	대상
	매세나인상	김영호-삼성SDI	대상

## Arts&Business상/하트하트재단&삼성SDI

# 삼성SDI,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후원 발달장애 청소년 음악가의 꿈 '활짝'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재단의 오케스트라 삼성SDI로부터 장학금 받아 전문적인 합주 교육 등 배워 30명 유대-대학원 진학하기도



삼성SDI가 후원하고 하트하트재단이 운영하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 모습

올해 20세에 접어든 전진 군은 꿈에 그리던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당당하게 입학했다. 발달장애로 입지 않았던 음악가의 꿈이었던 최준우(19)는 6학년 때부터 하트하트오케스트라에서 꾸준히 트럼펫 연주 해온 것이 전력이란 말만이었다. 전군은 "재능 수선 많은 보의 관심과 사랑을 기어올라 어려운 환경 속

에서 음악 공부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연주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삼성SDI는 2007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목적으로 소외계층의 발달장애 청소년을 지원하는 '재능키움 캠페인'이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후 사회복지재단인 하트하트재단과 손잡고 음악 재능이 있었던 한 명분이 어려울 약 기 교육을 받기 어려운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에 장학금과 멘토링을 후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두 삼성SDI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이뤄지고 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와 장송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수은 교향곡 전야제 등의 연주회나 공연 이후 현재까지 90여 회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매세나협회와 매일경제·MBN이 주최하는 제2회 매세나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삼성SDI와 함께하기 전 이 오케스트라는 지도 선생님 20명이 함께 참여해 1만 3000여 명이 전문적인 합주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연 1000여 명이 공연활동으로 발달장애어린이들의 전문적인 전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0여 명의 발달장애 청소년이 음악대교 및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와 장송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수은 교향곡 전야제 등의 연주회나 공연 이후 현재까지 90여 회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

주, 클루브 듀오, 프로젝트 앙상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준우(19)는 6학년 때부터 하트하트오케스트라에서 꾸준히 트럼펫 연주 해온 것이 전력이란 말만이었다. 전군은 "재능 수선 많은 보의 관심과 사랑을 기어올라 어려운 환경 속

에서 음악 공부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연주자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삼성SDI와 함께하기 전 이 오케스트라는 지도 선생님 20명이 함께 참여해 1만 3000여 명이 전문적인 합주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연 1000여 명이 공연활동으로 발달장애어린이들의 전문적인 전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0여 명의 발달장애 청소년이 음악대교 및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와 장송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수은 교향곡 전야제 등의 연주회나 공연 이후 현재까지 90여 회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매세나협회와 매일경제·MBN이 주최하는 제2회 매세나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삼성SDI와 함께하기 전 이 오케스트라는 지도 선생님 20명이 함께 참여해 1만 3000여 명이 전문적인 합주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연 1000여 명이 공연활동으로 발달장애어린이들의 전문적인 전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0여 명의 발달장애 청소년이 음악대교 및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매세나협회와 매일경제·MBN이 주최하는 제2회 매세나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삼성SDI와 함께하기 전 이 오케스트라는 지도 선생님 20명이 함께 참여해 1만 3000여 명이 전문적인 합주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연 1000여 명이 공연활동으로 발달장애어린이들의 전문적인 전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0여 명의 발달장애 청소년이 음악대교 및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와 장송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수은 교향곡 전야제 등의 연주회나 공연 이후 현재까지 90여 회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매세나협회와 매일경제·MBN이 주최하는 제2회 매세나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삼성SDI와 함께하기 전 이 오케스트라는 지도 선생님 20명이 함께 참여해 1만 3000여 명이 전문적인 합주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연 1000여 명이 공연활동으로 발달장애어린이들의 전문적인 전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0여 명의 발달장애 청소년이 음악대교 및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와 장송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수은 교향곡 전야제 등의 연주회나 공연 이후 현재까지 90여 회의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



# 코로나도 못막은 기업·예술인 만남... 올해도 277쌍 탄생

2021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대기업 부문 올해 베스트 커플에  
'실원량문화재단 & 페스티벌 오원'  
대한전선 설립자 신남·유지 따라  
임동혁·김선옥 등 스타 발굴도  
올해로 16번째 '아름다운 결연식'  
누적 후원 2170건·920억원 달해

2021년 신규 결연 기업-예술단체	
기업	예술단체
테크코리아	에이드런
메트로이프생명	은행나무출판사
사회공헌재단	
케이옥션	광주비엔날레
KT&G	컴파니에스엑스
일신문화재단	살과공 켈버오페라시어터
한화생명	얼터너티브 랩 밴드이날치
LG연일문화재단	ABC랩
한미약품	한국연극협회
크라온해태제과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아
케이옥션	헨스파크
KT&G	상상마당부산연극파크
LG연일문화재단	JS미디어랩



트리오 오원이 '페스티벌 오원'에서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실원량문화재단]

예술을 꽃피우기 위한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이 올해도 이어진다.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희근)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1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개최하고 기업과 예술단체 커플 277쌍이 탄생했음을 알린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국내 대표 정수메세나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6번째인 이 행사는 기업과 예술단체 간 1대1 결연 사업으로, 메세나를 통해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도모한다.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 전략 등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기업의 창조적인 문화 경영과 예술단체의 인적·정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2006년 첫발을 내딛던 이래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예술단체와 1대1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기업이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예술단체에 추가로 정부 지원금이 주어지는 '예술 지원 매칭펀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업 결연 지원 건수가 38건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업 결연인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지원 건수가 229건에 달해 지원 금액이 98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이

후 올해까지 후원 누계 실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해 총 2170건이다. 누적 지원 금액은 약 920억원에 달한다.

올해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는 대기업 부문에서 '실원량문화재단&페스티벌 오원'이 올해의 베스트 커플에 선정된다. 중소기업 결연에서는 '진성테크&대건챔버피아'가 올해의 베스트 커플에 선정된다.

실원량문화재단은 2006년 12월 문화예술 창달과 인재 양성,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으로 사업의 첫발을 내딛던 이후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재 양성과 문화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원량문화재단의 안정적인 단체 운영 뒤에는 대한전선의 후원이 있었다. 대한전선 설립자인 고(故) 실원량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기리고 과학기술 못지않게 문화예술이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신념하에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예술감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첼리스트 앙성원이 이끌고 있는 '페스티벌 오원'은 2011년 앙성원이 한국과 유럽을 무대로 활동을 펼치며 맺은 친분을 토대로 각 지역 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예술 축제로 자리 잡았다. 10대부터 프랑스에서 성장하면서 유럽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음악 가정의 이점으로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앙성원이 자신을 중심으로 결성된 '트리오 오원'과 '트리오 오원'의 멤버 바이올리니스트 율리베에 사틀리에(파리 음악원 교수), 피아니스트 예마뉼뎀 스트로세트(파리음악원 교수)와 함께 매년 한국과 유럽 연주자를 초대해 음악 축제를 펼치다가, 행사 중에서는 하루 수차례 음악회가 개최돼 관객이 연주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 음악을 감상하고 그다음 장소로 다시 이동해 계속해서 음악을 즐겼다. 마침내 지난해까지 이어지는 공연을 커 피아니스트와 함께 즐기면서 한국과 유럽의 예술가가 선보이는 선율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관객 참여형 예술 축제로 자리 잡았다. 2014년에는 경기도 평촌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페스티벌 오원을 통해 한국 연주자들을 유럽에 소개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2016년 한불수교기념공연에서 신예 음악가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민,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우승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내악계에 이름을 알린 아벨프르벳을 소개했다. 2017년에는 피아니스트 김선옥과 클라리네티스트 재재일을 선보였다. 2018년에는 국악인 연주자를 초대해 음악 축제를 펼치다가, 행사 중에서는 하루 수차례 음악회가 개최돼 관객이 연주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 음악을 감상하고 그다음 장소로 다시 이동해 계속해서 음악을 즐겼다. 마침내 지난해까지 이어지는 공연을 커 피아니스트와 함께 즐기면서 한국과 유럽의 예술가가 선보이는 선율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트리오 오원은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열린 '예술마루 실내악 페스티벌'에서 러시아 음악가들의 악곡을 선보였다. 스트리벤스키,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등 러시아 음악가들이 러시아 혁명 직후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려던 마음을 본받아 코로나19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감동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실원량문화재단은 2015년부터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해온 경기발해보니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과 결연을 맺고 지원해왔다. 실원량문화재단은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재능이 뛰어난 아티스트를 후원하는 것은 메세나의 기본"이라며 "예술영재를 지원함에 있어 그의 재능만 보진 않고 철저한 자기 단련, 음악 외에 다양한 인문적 소양도 함께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 6년간 이어진 인연, 문헌 고음악을 되살리다

중소·중견기업 부문 베스트 커플엔  
'진성테크 & 대건챔버피아' 선정  
직업 음악가 없는 실력파 합창단  
'잇힌 거장' 켈렌카 연주회 호평

대건챔버피아는 중세와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교회음악을 연구하고 전파하기 위해 창단된 합창단이다. 1996년 창단 이후 수십 차례의 연주회를 통해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디트리히 북스테후데, 하인리히 쉬츠, 헨리 퍼렐 등 국내에는 소개된 적 없는 다양한 작품을 발굴해 고유한 색채로

재해석해 연주하면서 고음악이라는 비주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교회음악은 시리즈를 통해 영국,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여러 지역의 음악을 차례로 선보였다. 올해는 2014년부터 4년간 이어온 안 디스마스 켈렌카의 작품을 선보이는 연주회를 재계할 예정이다. '잇힌 거장'으로 불리는 켈렌카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정수했거나 유럽에서도 몇백 년간 있었다가 이제 다시 조명받고 있는 보헤미아 작곡가다. 바흐만큼이나 연주하기 어려운 악곡들은 시대악기단체인 카메라타 안티파 시쿨라와 함께 연주해 음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대건챔버피아는 켈렌카에 앞서 텔레만, 퍼렐 등 한국에서 덜 알려진 명작을 탐사해왔다.

2018년에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를 잇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작품을 연주하면서 그의 대표작인 '성모마리아의 저녁기도'를 한국 최초로 시대악기 연주로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렸다. 올해는 몬테베르디의 1641년 작품집 '율리와 영혼의 숲'에서 교회음악들을 통해 연주한다. 그중 대부분의 곡들은 한국 초연작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은 대건챔버피아는 연주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합창단이자 소수 단원 중 직업음악가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35년 이상 유수의 음악가와 함께 연주해온 안병덕 지휘자는 법대를 졸업해 무역회사를 이끄는 최고경영자(CEO)이다. 다른 멤버들도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의 악곡을



대건챔버피아의 예술의전당에서 볼런카 연주회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대건챔버피아]

즐거은 랜으로서 단체에 참여해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전기 총합 자재 전문기업 진성테크는 2014년부터 대건챔버피아와 인연 맺어 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왔다. 성단에서 상가대 단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은 노회인 진성테크 대표가 대건챔버피아의 활동에 공감하면서 지원을 시작했다. 대건챔버피아

어는 정기 연주회에 진성테크 임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생소한 시대악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연주 권 리허살을 참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펼쳤다. 진성테크 임직원들에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어떻게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지 보다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박대의 기자

아시아경제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025면 PEOPLE

## 아모레퍼시픽, 한국메세나대회 대상

14년째 '실화문화전' 운영  
전통공예 전문가 지속 후원



용, 전통예술, 미술 분야의 청소년 인재에게 6년간 장학금을 지급해 더 큰 예술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됐다. 창의상(메세나협회장상)은 한화손해보험에 돌아간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7년간 운영해온 무용 기반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위기탈출 안전교육'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사진)이 한국메세나대회에서 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메세나협회는 17일 오후 조선호텔에서 한국메세나대회를 한다. 대상을 받는 아모레퍼시픽은 14년째 '실화문화전'을 운영한다. 전통장, 염색장 등 전통공예 전문가를 지속 후원하며 한국 전통문화의 보존과 세계화에 앞장선다. 베네치아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다수 문화예술 기관·단체도 후원한다.

문화공헌상(문체부 장관 표창)은 KT&G 장학재단이 받는다. 음악, 무

나협회장상)은 한화손해보험에 돌아간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7년간 운영해온 무용 기반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위기탈출 안전교육'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술인 후원에 열의를 보인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메세나인상을 받는다. 우수한 문화예술 결연 활동을 펼친 기업·단체에 수여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상은 삼성SDI와 하트-하트재단이 공동 수상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

## 매일경제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A37면 사람과사람



기업과 예술의 만남... 제22회 메세나대상 시상식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메세나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오형진 대건챔버피아 대표, 정진택 한화손해보험 전무, 양귀애 실원량문화재단 이사장, 백정호 동성케미컬 회장, 노회인 진성테크 대표,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박영주 이간산업 회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김희근 한국메세나협회장, 오정화 아모레퍼시픽 상무,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준희 삼성SDI 상무, 오지철 하트-하트재단 회장,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장. (이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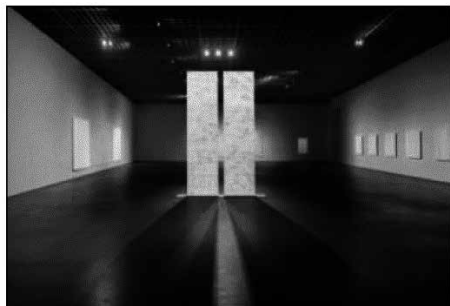
### 설화문화전 15년...올 '메세나 대상' 수상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이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 메세나대상'에서 대상을 받는다. 오랫동안 전통문화, 미술, 단편영화 등에 걸쳐 폭넓게 문화예술을 후원한 노력의 결과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는 2006년부터 문화 메세나 활동인 '설화문화전'을 해왔다. 매년 전통 장인, 현대작가와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설화문화전을 통해 한국 전통의 격조 높은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가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중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색상, 문양, 옹기, 활, 이야기, 금박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해왔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배경에는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운영, 미장센 단편영화제 후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후원 노력도 있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한국 전통을 지키고 알리겠다는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1979년 설립한 태평양박물관을 계승했다. 동양과 서양의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한데 아우르는 미술관은 전시와 연구, 출판, 지원사업 등 한국의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이어가는 중이다. 올해로 20번째 단편 영화 활성화와 재능 있는 신인 감독 발굴을 위해 미장센 단편영화제도 후원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내년 2월 20일까지 진행되는 현대 미술 기획전 '메리코스 빛을 담은 회화' 전시 전경. 아모레퍼시픽 제공

### “도전·성장·희망을”... 온라인 청춘 콘서트

#### 현대차, 오늘부터 3차례 개최 올해 군장병대상 사회공헌활동

현대자동차그룹이 군장병들에게 도전·성장·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현대차그룹은 국방부, 한국메세나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군장병 대상 사회공헌활동인 '2021 군인의

품격 온라인 청춘 토크 콘서트'를 오늘부터 시작해 23, 30일 3차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해 '오늘의 청춘에게'라는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군장병 외에 청년 등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박세리 감독, 에듀테크 그룹 야나

두의 김민철 대표, 여성 듀오 옥상달빛이 각각 도전, 성장,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강연을 진행한다.

3명의 연사를 각각 부대와 매칭해 장병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Q&A) 코너 '청춘 마이크, 내 마음을 들어줘', 사연 전달 이벤트 '청춘 고백' 등으로 구성된 사전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진 병영문화 정착은 물론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아모레퍼시픽 전통장인·현대작가들과 협업 '설화문화전' 호평

아모레퍼시픽이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메세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오랜 기간 이어온 아모레퍼시픽의 전통문화·미술·단편영화 등 폭넓은 문화예술 후원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는 2006년부터 문화 메세나 활동인 설화문화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전통장인, 현대작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설화문화전은 한국 전통의 격조 높은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가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동안 한국의 색상·문양·옹기·활·이야기·금박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이어왔고 '창, 전통과 현대의 중첩'을 주제로 열린 2020년 설화문화전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전통



설화수는 2006년부터 해마다 전통장인, 현대작가들과 협업해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과 현대를 잇는 작품을 선보였다. 국내외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설화수는 전 세계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를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한국의 문화와 예술 후원을 통해 국내외에 더 널리 알

리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기업 소명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문화와 감성을 나누고 이를 통해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퇴근 후에도 묵묵히 썼다 어느날 기회가 찾아왔다”

### 국가보훈처 이태승 사무관 신진작가 ‘첫 책 지원 공모’ 1등 직장생활 풍자 ‘근로하는 자세’ 등 “너무나 사실적 작품” 높은 평가



박상훈 기자

공무원 이태승씨는 주말에 소설을 쓴다. 그는 “작가로 자아를 전환할 때 클래식이나 영화·드라마 음악을 듣다”고 했다.

“첫 소설책을 내드립니다.” 출판사는 행나루가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과 올해 처음 진행한 ‘첫 책 지원 공모’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문단의 신인을 지원해달라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대상을 ‘등단 5년 이내 작가 중 출간 경험이 없는 작가’로 한정했다. 응모 원고는 장편이거나 중편 4편, 혹은 단편 8편, 책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1000만원 상금까지 주는 이 공모전에 3개월간 91명이 응모했다.

소설가 은희경과 정유정이 심사에 참여했다. 단편 ‘근로하는 자세’가 단연 화제가 됐다. 부처 차관과 상관을 모시고 떠난 해의 출장에서 납치 사건에 휘말리는 공무원 이야기로, 위계질서와 관료제를 풍자하며 일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타 부처 소관”이란 변명을 돌려대거나 부하 직원을 채근하고, 중간 관리자는 뒷사람에게만 충성한다. 수상자를 뽑으며 은희경은 “문단에 치우친 사람 같지 않다. 그런데 작품들 수준이 준수하다”고 했고, 정유정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공무원이 아니면 써낼 수 없다”고 했다.

심사자들의 예언은 적중했다. 수상 주인공은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이태승(35) 사무관. “처음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각별할 테죠. 그동안 썼던 소설들이 독자와 만날 기회를 얻어 기쁩니다.” 행정고시로 2015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듬해 심훈문화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공직 입문을 앞둔 2014년 소설 쓰기 시작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김애란, 박민규의 소설을 즐겨 읽는 독자였다가 어느 날 “재밌는 이야기를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고 했다.

문예상을 받고도 문예지나 출판사 청탁은 없었다. 그래도 썼다. 이씨는 글쓰기를 “목표를 위한 수단이기보다 나를 위한 행위”라고 했다. “소설은 나를 표현하는 예술이자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들자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차피 계속 쓰겠구나. 그렇다면 좋은 소설을 느긋하게 써보자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주말마다 자판을 두드리며 해마다 단편 2~3편을 쌓아나갔다.

이씨는 “남 이야기라 생각했던 소설이 점점 남이면서 나이기도 한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제 소설 대부분이 직장 속 인간관계의 아이러니, 혹은 조직이 부과하는 의무에 시달리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조망합니다.” 이씨는 집필 중인 소설에 등장하는 택배 기사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택배 기사가 어느 날 심크홀에 빠진다. 배달 임무 완수를 위해 탈출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런 휴가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그냥 구덩이에 있기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다급해지는 건 택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들이 택배 기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출간 기회를 얻지 못한 작가들이 적지 않다. “때를 알고 내리는 비가 있듯이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조금은 의연하게, 그리고 조금 더 즐겁게 쓰면 됩니다.” 소설가 이태승의 첫 책은 내년 3월에 나온다.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기문 기자



## ‘벤츠 딜러’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10주년 전시회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인 한성자동차 자사의 미술영재 장학 프로그램 ‘드림그림’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연다.

9~19일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2층에서 ‘A dream of 10 years(부제: 미래의 예술가 드림그림과 함께한 14명의 아티스트)’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전시회다. 2012년부터 올해로 10년간 운영되고 있는 한성자동차의 ‘드림그림’ 스토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무대이자 아티스트들과 함께 진행해온 작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KIAF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및 각종 유명 아트페어에서 선보였던 드림그림의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올프 하우스프롱한성자동차 대표는 “매년 연말 진행되는 드림그림의 전시회 중, 올해는 특별히 10주년을 맞아 풍성하고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전했다. 손재철 기자

# 김환기·박수근 그림에 김구 글씨까지... 새 주인 찾는다

## 케이옥션 12월 경매

### 22일 145점 115억여치 출품 9억~12억 김환기 ‘무제’도 나와

국민화가 박수근(1914~1965)의 마지막 역작 중 하나로 꼽히는 ‘공기놀이하는 아이들’(1965)이 경매에 나왔다. ‘박수근 45주기 기념전과 ‘박수근 탄생 100주년 기념전’ 등 주요 전시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작품이다.

케이옥션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열리는 12월 경매에 이 그림을 비롯해 115억 원 규모의 작품 145점이 출품된다고 14일 밝혔다. 박수근의 작품은 둘러앉아 공기놀이를 하는 소녀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그림이다. 작가가 작고하던 해 그린 작품으로, 같은 주제의 여러 그림 중에서도 원숙미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박수근의 '공기놀이하는 아이들'



김환기의 '무제'

2019년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는 1960년대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명의 작품(43.3×65cm)이 15만 홍콩달러(약 22억75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 출품작은 홍콩경매에서 팔린 작품의 절반 가량 크기(23.1×31.2cm)로 추정가는 6억~8억5000만원이다.

이번 경매 추정가 최고 작품은 구

사마 야오이(92)의 2003년작 'Infinity-Dots(AB)'(추정가 11억~17억원)이다. 불방울 무늬를 그린 그의 작품 중 몇 안 되는 장주색 그림이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1913~1974)가 1960년대 그린 '무제'(추정가 9억~12억원)도 희귀작으로, 바탕에 노란색을 쓴 그의 그림은 손에 짚을 정도로 드물다고 한다.

올해 초 작고한 김장영(1929~2021)의 작품이 시대별로 다양하게 출품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79년작 '불방울 CHS68'(추정가 3억8000만~4억5000만원)과 1980년작 '불방울 ENS 8019'(추정가 2억5000만~3억5000만원)를 시작으로 1991년과 1999년에 각각 그린 '회귀' 연작 등 여섯 점이 새 주인을 찾는다.

백범 김구(1876~1949)의 글씨 '산고수장(山高水長)'과 윤보 김기창(1913~2001)의 '하경' 등의 호가 경쟁도 기대된다. 연말을 맞아 열리는 자선 경매 'Sharing Love with Art'도 눈길을 끈다. 김태호 최영욱 권현진 등의 작품 일곱 점이 자선 경매에 나왔다. 수익금은 한국매세나협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어린이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우리의 눈'에 기부된다. 프리뷰 전시는 경매 당일까지 케이옥션 사옥에서 열리며 관람료는 없다. 성수영 기자

# 기업과 사회 공유가치 실천... 세상 더 건강하게 밝힌다

## 종근당

### ESG 관련 국제표준 인증 획득 병원 직접 찾아 문화예술 지원 임직원 헌혈 행사 등 나눔 앞장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기업활동의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ESG 실천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기업 종근당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 ESG 경영을 위한 노력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인식과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경영은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가 됐다. 종근당은 2018년 10월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을, 2019년 12월 제약업계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50001)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법'에서 매년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10월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1 ESG 등급'에서 종합등급 A를 획득했다.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종근당은 CKD 윤리규범을 제정해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CKD 윤리규범에는 임직원의 기본윤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공헌 책임을 명시해 두고 있다. 2007년부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수반되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 실천

종근당은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 나서고 있다. 특히 꾸준한 매세나 활동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부터 부림 중년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국 주요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오페라 희망 이야기 콘서트'와 환자들을 위한 '키즈 오페라' 공연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61회의 오페라 콘서트의 188회의 키즈 오페라 공연을 펼치며 오페라를 통한 문화예술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오페라 희망이야기 콘서트는 병원의 로비나 속 알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유명한 오페라 속 이야기와 영화 OST, 뮤지컬 등 친숙한 음악들을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 들려주는 콘서트 형식의 공연이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했으



2020년 종근당 사랑나눔 헌혈행렬.

며, 올 11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비롯해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초청해 다채로운 음악 공연을 선보이며 응원을 펼치기를 전담했다.

키즈 오페라는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는 물론이고 클래식,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끈다. 올 5월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S시어터에서 '종근당 KIDS HOPERA(HOPE+OPERA)' 공연을 진행했다. 희망을 의미하는 'HOPE'와 오페라 'OPERA'를 결합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공연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문화예술에 대한 종근당의 남다른 행보는 2012년 한국매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대안공간인 아트스페이스 휴와

연간 1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개최한다.

4월에는 종근당 예술자상 2021 올해의 작가로 이재훈, 이혜민선, 정익성 작가를 선발하고 중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10월에는 평화본 세종미술관에서 2019년 선정 작가인 양유연, 유현경, 이태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제8회 종근당 예술자상 기획전'을 열었다.

###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종근당은 지역사회 소중 전도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매달 전 임직원들이 업무시간을 함께 해 봉사기워워한 서울 서대문구, 연구소가 위치한 경기 용인,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남 천안 지역의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또 매년 여름철 휴업 수급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종근당 본사를 비롯한 전국 5개 사업장에서 헌혈 캠페인을 전개해 헌혈증과 기부금을 한국매세나어린이재단에 전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내이비 해피진과도 협력을 통해 내이비 해피진 '가봄' 프로그램에 참여된 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펼치며, 내이비 해피진 기부 플랫폼을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재활 기부'도 진행한다.

이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책도 만들고, 소이안 환자를 위한 마스크 만들기, 조전부 기소유에 차분을 받은 19세 미만 소년방을 위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인 '가람 마니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택지 기자 nadi1@donga.com



제8회 예술자상 기획전 포스터.



머니투데이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016면 산인

# 연말연시 기업들, 비대면 문화교육 'ON'

## CJ나눔재단·KT&G복지재단, 음악 등 프로그램 다양... 단순 기부 넘어 진화

올 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광풍이 몰아치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기업들의 기부활동이 빈번한 가운데 코로나19(COVID-19) 유행에 적합한 언택트(비대면) 문화교육에 나선 기업들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CJ나눔재단은 온·오프라인 융합형 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CJ도너스캠프 온택트 문화스쿨'은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교육이다.

코로나19로 생활문화·교육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프로그램은 명작영화·다큐멘터리, 음악감상, 토의, 디자인창작 등이 있다. 올해 170개 기관에서 4300명의 아동을 지원했다. 청소년 문화동아리인 '문화꿈지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부



CJ나눔재단이 운영하는 'CJ도너스캠프 온택트 문화스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강의 듣고 있다. /사진 제공-CJ나눔재단

디 6개 문화분야로 구성됐다.

KT&G복지재단은 한국메세나협회와 '아름드리 음악미술교실' 사업을 전개한다. 역시 사회배려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500여곳에 예술강사를 파견했다. 미술 교실에선 회화와 공예, 통합미술 활동을, 음악교실에선 타악교육, 국악 등의 음악놀이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공

동체의식과 공감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자발적 참여와 다양성 존중 등의 효과를 얻게 된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실제 언택트 문화교육은 지난해보다 수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은 CJ나눔재단의 의뢰로 지역아동센터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이후에도 언택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난해 55%에서 올해 64%로 높아졌다.

프로그램별로는 미술·디자인, 영화·공연관람 등의 수용도가 부쩍 상승했다. 언택트 문화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해석이다.

CJ문화재단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아동·청소년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

The JoongAng

2021년 12월 28일 월요일 1049면 특이

# 미술영재 장학 프로그램 '드림그림' 10주년 기념 전시회 성료

## 한성자동차, 드림그림의 아티스트 멘토링 작가 14명 작품 전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는 자사의 미술영재 장학 프로그램 '드림그림(Dream Gream)'의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지난 9~19일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개최했다. 한성자동차는 한국메세나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부터 지속해서 미술영재 장학사업인 드림그림을 운영해왔다. 예술적 재능과 꿈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중고교 학생을 선발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예술적·경제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40명의 멘토, 40명의 멘티, 40명의 한성자동차 임직원 멤버십이 매칭돼 총 120명으로 운영된다.

### 드림그림의 10년 스토리를 한눈에

이번 전시회는 'A dream of 10 years(부제: 미래의 예술가 드림그림과 함께한 14명의 아티스트)'라는 제목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쌓아온 드림그림의 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됐다. 그동안 많은 아티스트들과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선보였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드림그림과 아티스트 멘토링을 진행했던 국내 작가 14명(김은아·김홍식·노준·배준성·서수·석윤아·설동주·성림·손진형·알타임조·용세라·진기중·한경우·홍지희)의 작품을 전시해 방문객이 회화, 미디어 아트, 그래피티, 판화, 일러스트레이션, 렌티큘러 등 다양한 장르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멘토들이 도슨트로 배치돼 관람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자신과 비슷한 예술가 타입을 찾아보는 MBTI 유형 분석 프로그램, 캠핑장을 연상시키는 포토존, 드림그림 학생이 디자인 제작에 참여한 모바일 게임 '한성 드림 레이스'를 즐길 수 있는 게임존 등도 마련했다. 올해 드림그림 참가 학생들의 작품도 전시됐다.

### CSV 프로그램으로 한 단계 도약

한성자동차는 드림그림 10주년을 맞아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를 담은 새로운 방향성을 선포하고, 드림그림의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이런 기초 하에 올해 한성자동차는 예비 예술 창업가의 고유 브랜드 론칭을 지원하는 '드림그림 영디자이너(Young Designer)' 시행, '드림그림 아트키트' 제작·배포, '드림그림 온라인 스

### 프롬 대표의 "드림그림은 해마다 연말

이벤트 전시회는 'A dream of 10 years(부제: 미래의 예술가 드림그림과 함께한 14명의 아티스트)'라는 제목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쌓아온 드림그림의 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됐다. 그동안 많은 아티스트들과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선보였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노준 작가의 대형 설치 미술 작품 '슬리부와 프렌즈' 시리즈는 매년 진행되는 드림그림 재능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 병원에 축소된 조형물의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드림그림 학생들과 아티스트 멘토링을 진행했던 세계적 렌티큘러 아티스트 배준성 작가와 협업한 작품은 지난해 연말, 재능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돼 환우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성자동차 울프 아우스프롱 대표(왼쪽 넷째)와 임직원 멤버십, 전시회 참여 작가, 드림그림 멘토와 멘티가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한성자동차

### 회화·그래피티 등 다양한 장르 감상 드림그림 참가 학생의 작품도 전시 "양질의 예술 교육과 경험 제공할 것"

드림그림 영디자이너'는 드림그림의 미술 전공 대학생 멘토를 대상으로 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개인과 단체 각자 1팀을 선발하고, 이들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제작해 고유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창업 과정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했다. 영 디자이나너로 선정된 멘토들은 각각 '바노(VANO)'와 '크레용 스튜디오(CRAYON STUDIO)'라는 고유 브랜드를 론칭하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제품은 '드림그림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드림그림 온라인 스토어'는 지난 6월 오픈했으며, 드림그림 장학생과 작가가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로 제작해 서울 디자인페어 및 드림그림 연말전시회에서 공개했던 다양한 굿즈를 판매한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과 한성자동차의

1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는 드림그림과 아티스트 멘토링을 했던 작가 14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 토어' 오픈, '드림 나눔 마켓' 바자 이벤트를 진행 등을 추진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금을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드림그림 아트키트(Art Kit)는 드림그림 장학생이 직접 미술교육을 위한 아트키트와 유튜브 동영상 제작해 전국 100여 개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 약 1000명에게 보급하고 미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 메뉴의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가정에도 400개의 키트를 보급했다. 드림그림은 이를 통해 수혜자가 아닌 시혜자로서 재능을 사회에 환원했다.

한편, 드림그림은 올해 졸업하는 장학생들의 졸업식을 '제페토 드림그림 메타 플랫폼'에서 진행했다. 앞으로도 메타버스 관련 교육을 장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 매일경제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A14면 금융



금융과 미술의 만남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 로비에 있는 '금고미술관'에서 우정수 작가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은은 이날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신진 작가 미술 전시회를 약 두 달 동안 연다. /사진 제공-한국수출입은행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발행일 2022. 2.  
발행인 김희근  
편집 경영기획팀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전화 02.761.3101~2  
홈페이지 [www.mecenat.or.kr](http://www.mecenat.or.kr)



**Korea Mecenat Association  
2021 Annual Report**

**2 0 2**